

第97回(定期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9年12月 7日(火) 10時03分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區政質問의 件

附議된案件

1. 區政質問의 件 1面

(10時03分 開議)

○議長 洪承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區政質問의 件

○議長 洪承台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로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서는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李憲九議員!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九議員 효자동 출신 李憲九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洪承台 議長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나 수고

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청 수장이신 존경하는 鄭興鎭 區廳長님과 盧張鐸 副區廳長님! 각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시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뒷좌석에서 경청하고 계시는 방청주민과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효자동 주민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19만 종로구민의 대표들을 모신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 주민들은 영욕의 20세기를 보내고 희망과 번영의 새천년을 불과 20여 일 남짓 앞에 두고도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20세기와 21세기 양세를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국민이나 주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라가 그 어려웠던

IMF라는 긴 터널을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이제 막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는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어느 한곳이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신과 좌절을 갖게 됨으로서 이 새로운 대망의 새천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께서 지난 11월 25일 본회의 석상에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민선2기 출범 1년4개월이 지난 동안의 성과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실업자 구제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친 결과 사회복지 분야 서울시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 1억원의 상금을 수상하고 둘째, 지역개발사업은 경제난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착실히 개발하여 잘 추진되었고 셋째,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낙산공원 등 5대산 가꾸기와 휴지통 없는 거리 등 환경미화에 힘쓰셨고 넷째, 안전사고 방지와 홍수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서울시 25개 구청 중 안전관리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고 다섯째,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강화에 역점을 기울여 전화 친절회 받기 1위, 민원 행정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MBC 베스트서비스기관 지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우리 구민들은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새천년을 맞음에 즈음하여 신명나게 그리고 희망에 부풀어 생활해야 되는데 별로 그러하지 못한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치른 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나 우리나라는 1988년 단군 이래 최대 경사라는 올림픽을 치렀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던 국민적 행사를 남의 일 보듯 하였습니다. 이제 2002년 월드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일본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월드컵 불이 한창인데 우리나라는 월드컵 준비도 미흡하지만 국민들의 호응도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를 경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또한 문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1년4개월 동안 사회복지 분야만 해도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선행업소 선정 표찰달아주기, 불우주민 위문,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및 생계보조수당 지급,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등 보육시설 지원과 여성문화센터 운영, 여성교양대학 운영, 경로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복지사업을 펼쳐왔으나 열심히 하신 것에 비하면 섭섭하실 정도로 무관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해도 구민이나 국민은 오랜 타성에 젖어있어 그 고마움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새천년에는 돈 덜 들고 신명나게 사는 그래서 온 구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이벤트를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친목계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단합대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만큼 단합대회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나라도 드물 것 같습니다. 이 단합대회를 우리가 뭉치고 화합하는 데 이용하여 새천년을 맞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0년 1월 1일 아침 해돋는 시간에 우리 구에서는 새천년의 소망을 담은 해맞이 행사를 인왕산이나 동망산 아니면 가까운 뒷동산에서 맞이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가질 용의는 없으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광진구에서는 아차산에서 구 행사를 갖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당과 3공, 5공, 6공 시절에는 플래카드와 결의대회가 많았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합니다. 북한 TV를 보면 모든 행사가 붉은 플래카드의 홍수 그리고 켈기대회 형식의 행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거나 유치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플래카드가 선전과 홍보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다양합니다. 국가 정책에 관한 것에서부터 관청의 홍보 자랑거리 특히 우리 구청에서 생활체육이나 취미교실에 관계되는 플래카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골로 내다거는 그래서 1년 365일 때가 잔뜩 긴 재활용 수

집 플래카드는 가관입니다. 여기에다 민간인의 생활 플래카드 특히 인사동 골목길에 가보면 참으로 엄청납니다. 우리 구청 도시계획과에 광고제가 엄연히 있어 플래카드 게첨허가와 기간 등 규제가 있을 것인데도 단속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의대회나 캠페인이 많은 사회는 플래카드가 많이 걸립니다. 말로 하거나 반상회보를 통하거나 하여 홍보하면 되지 꼭 플래카드로 알려야 할 사항이면 가로등대나 전봇대에 걸개로 걸든가 좀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라 전체로 계산하면 엄청날 것입니다. 특히 지자체 실시 이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공공성이 강하고 꼭 필요할 것 외에 플래카드도 이제 좀 삼가야 할 텐데 청장님께서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왕산정 경로당 확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 인왕산정 경로당은 옥인동 186번지에 대지 111.7평 위에 1층 33평, 2층 33평으로 연와조스라브로 1997년 3월에 2억 5,500만원을 들여 완공하여 현재 효자동 주민과 이웃동 주민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원석 성원제강 회장께서 사비로 매월 8일 경로잔치를 2층에서 개최하여 경로효친을 실천하고 있으며 어르신 250명에서 많게는 3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30여 명 내지 40명의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서회장님께서 이 분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 경로당 규모가 협소하여 2층 33평에서 매월 경로잔치 행사시 일시에 250여 명이상이 참석하시므로 극히 비좁은 상태로 경로잔치를 행하고 1층 33평에서는 어르신에게 중식 제공시 일시에 노인들을 수용하지 못하므로 어르신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鄭興鎭 區廳長님! 청장님께서도 가끔 방문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서 회장님께서 서울 특별시장 자랑스러운 시민상 미풍양속 부문상을 수상하셨고 제2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효행 학생 20명에게 장학금 600만원을 전달한 것을 비

롯 모교인 군산중·고등학교의 대상을 수상하시고 보건복지부장관상과 10년간 맹인 200명에게 광명을 찾게 해주신 분이며 이 어른이 하시는데 말씀 중에는 “나누어 먹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어른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하시겠지만 이 분의 따님인 서혜경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이고 둘째딸 서혜주씨도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합니다. 또 서회장님께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앞으로 종로구 노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어른이 경로당이 좁으니 자기 자비로 경로당을 증축하여 종로구에 기부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구청장님께서 서 회장님의 숙원을 해결해 주실 의향이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리쓰레기 해소방안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공청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범규위반 행위를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에게 부과 금액의 8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꽂초나 휴지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이 자리에서 거리쓰레기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청장님의 답변도 있었으나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다소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뒷골목은 여전히 지저분합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골목반장님에게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급하여 매일 아침 골목 사람들끼리 모여서 골목청소를 하도록 권장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마음 화합이 가장 중요한 때 주민들끼리 포상금 관계로 고발하여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안되겠습니다. 더구나 시행하다가 용두사미 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청장님께서 이 제도의 시행이 진행되지 않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좋은 방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의는 누하동 56번지에서 누하동 93번

지 간 주거환경개선지구 끝자락과 새로 개설될 필운동 옥인동간 거리에 연결되는 도로를 기획예산과장에게서 통보받아서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필운동, 신교동간 도로 중 옥인동 47번지 410호에서 서울교회까지는 4m미만의 도로로 자동차 1대 겨우 지나갑니다. 그런데 버드나무 약수터쪽에서는 이 길로 오려면 옥인동 47번지 325호 앞만 노폭이 1m정도로 매우 좁습니다. 사람 한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이 지점 주택 2개동 앞만 확장하면 옥인동 전체의 일주도로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도로 기능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옥인동 47번지 410호에서 청운동 56번지 74, 56번지 75호 사이의 도로와 연결시키는 소통로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중기계획으로 개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길을 개설하면 청운동, 신교동, 옥인동 길이 열리면서 특히 신교동 2번지 일대는 소방 사각지에서 해방됨은 물론이고 주차공간이 생기는 일석3조의 꼭 개설되어야 할 도로입니다.

장시간 본 의원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鄭興鎭 區廳長님과 盧張鐸 副廳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과 언론에 종사하고 계신 분에게도 고마운 말씀 다시 한 번 전하면서 새천년에는 우리나라와 우리 종로구와 우리 19만 종로구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맛 나고 신명나는 새천년이 되도록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빨리 읽어서 죄송합니다.

○議長 洪承台 李憲九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千相旭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相旭議員 千相旭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李憲九委員長께서 아주 깔끔한 인사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사의 말씀을 빌어서 대신하도록 하고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가운데에서 安載弘議員께서 종로구 도시계획 전

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 가운데 풍치지구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 첫 번째가 삼청동과 팔판동 그리고 청운동 일부 지역 중에서 영세한 필지가 밀집되어 있는 열악한 주거지역에 풍치지구 해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요지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피하고 가장 중요한 본 의원의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답변 중에서 약간의 우려가 갑니다. 安載弘議員의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서는 오후에 답변하시기를 2000년도에 가서 풍치지구는 부분적으로 해제하겠다 이러한 말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우려되는 바가 큼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풍치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 종로에 전체 풍치지구는 12%입니다마는 전체가 아니라 풍치지구에 속해있는 저도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장 한가운데 또는 열악한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풍치지구라고는 전혀 의미가 상실되어 있는 아주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 같은 시민으로서 고통받는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풍치지구 해제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95년도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로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도 종로구에서 저희 의원들이 주장해서 풍치지구 해제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의회를 수차 방문해서 그 당시는 이두하 우리 시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분이 종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의 99% 다 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현지확인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고 반가운 나머지 그 해당되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제 발표만 남았습니다. 곧 해제가 됩니다. 하고 제가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것을 발표를 미루더니 '97년도입니다. '97년도 7월달에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이 풍치지구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해제가 불가능하다 하고 통보가 왔습니다. 본 의원이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보기 위해서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입수는 못하고 최근에 이성호 시의원으로부터 이것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풍치지구 해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풍치가 양호한 소위 나무의 모양이 좋다든지 임목상태가 우람하다든가 하는 풍치지구 내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 소필지의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해제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서류가 10 몇가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는 절대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구청장께서 부분적인 해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청장님께 요청하기를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청장님께서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가지고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과 협의해서 영세한 필지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의 영세 필지라는 개념은 200㎡ 이하를 말합니다. 평수로로는 60평 이하를 말하는 거죠. 영세한 필지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단지를 방문하셔서 가지고 꼭 이것은 같은 시민으로서 50년 동안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종로구 자체에서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특별 기본계획을 입안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설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종로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가지고 제출하시면 해제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부분은 삼청로가 청와대를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삼청로입니다. 삼청로에는 바로 우리 국민이 자랑하는 위대한 문화유산인 경복궁이 놓여 있습니다. 그 경복궁을 관람하기 위해서 관광철이 되면 국내외의 관광객이 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 대형버스를 타고 오십니다. 그 대형버스가 많을 때는 동십자각에서부터 감사원까지 뺏칩니다. 그러면 교통 정체는 어느 정도나 하면 모든 승용차는 성북동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뺏어나오는 매년,

또 낭비되는 연료, 시간적인 손실은 이미 숫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로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더 크게는 서울시가 간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저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해결해야 되는데 서울시를 해결하려면 우리 종로구가 앞장을 서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5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라의 망신입니다. 우리 종로 전체가 소위 말하는 정도 600년의 고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의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속에 버스가 수십대가 정체되어 있고 교통체증이 성북동까지 밀렸다고 하면 성북동 길은 외국의 대사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서울의 수치, 나라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잘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하고 어쨌든 간에 시급히 이것은 관광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겨울 중에 시급히 해결해서 예를 든다면 과거에 치안본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자리라든가 아니면 한국일보 옛날 중등고등학교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차를 그쪽으로 배치시키고 관광객은 지하보도를 통해서 다니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을 관광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국관광객에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정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하는 사항은 인사동에 역사탐방로 개설을 위해서 지난번에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전문가들을 모신 자리에서 토론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한참 후에 알았는데 물론 그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기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종로구의회가 관심 밖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종로구청이 알아야 될뿐더러 우리 종로구의회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모든 질문을 받게 되면 답을 해야 하고 항상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모르고 질문을 받게되다 보니까 저희 동네 분들도 인사동에 사업을 많이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물어봤는데 저는 깜깜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얘기인즉 종로구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원도 그 자리에 있었고 부구청장의 주재 하에 회의를 했다 이겁니다. 토론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중대한, 도시개발을 위한 중대한 회의에 우리 구의원 한 분도 초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사항은 저희 의회에서 '99년도 예산심의 때 의정동우회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 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규정에 제약을 받아서 불가하다고 그래서 그 당시 사회진흥과 포괄예산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집행부의 예산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단 한푼도 예산이 시달되지 못했다. 결국 이 해가 다 가면 불용 처리될 것 아니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국회도 또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할 것 없이 의정동우회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억, 적게는 수천 만원까지 집행되고 있는데 저희 종로구에는 편성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 했다. 물론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든가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러한 법률을 알고도 집행을 합니다. 또 상부에서는 그것을 의정동우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동우회 발전은 지역의 발전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예산이다 해서 그것을 그냥 묵과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우리 종로구만은 너무도 법령을 까다롭게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해명도 요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千相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正大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議員 金正大議員입니다. 감기중이라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상당히 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洪承台 議長님! 吳錦南 副議長님! 先輩同僚 議員님! 우리 모두는 19만 종로구민의 지방자치 본래의 참뜻을 헤아려서 가치높은 구정을 펼쳐달라는 진정한 채택의 자리로 생각이 돼서 어쩌면 우리 19명 의원들의 이 수고로움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존경해마지 않는 鄭興鎮 區廳長님!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해서 각 局長님! 그리고 職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마음고생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달리 주장해서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19만 종로구민의 열렬한 관심과 기대 속에 불편 부당한 정책들을 보다 더 올바르게 모색하고자 다양한 목소리로 분출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고 보면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개선해서 진정한 복지구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써야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선 동 행정에 큰 변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센터 시범 동인 승인1동 출신 구의원으로 자치센터 시범 운영에 대해서 기이 발생하고 있는 모순점과 향후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8년 행정자치부 모 장관 재임시에 그러니까 작년초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거론으로 지방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미묘한 관심의 대상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역대 정권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동사무소를 폐지한다 하는 이런 말을 많이 들은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상반기에 와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이란 취지아래 6월말

에 주민자치센터 결성식과 더불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송인1동과 명륜3가동 이 2개 동을 시범 동으로 운영해서 2000년 7월 1일자로 각 동으로 전면 확대코자 하는 일대 개혁정책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범 동에서 당면한 불편 부당하고 중요한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는 구비로 통상 지원되어 왔던 것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취미교실은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받습니다. 이 강사료가 시범 동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면서 7월 1일자로 강사료가 모조리 중단됐습니다. 시범 동이 아닌 동은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며칠 전 수감자료에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청소, 교통, 세무, 토목, 주택 등 다수의 행정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주민들이 직접 구청에 와서 어느 과인지, 주택과인지 건축과인지 한참 헤매고 다니는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곁에서 일을 봐주던 직원들이 구청으로 와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의 불편만 초래했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제가 우측에 앉아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行政管理局長님과 李炳滿 總務課長님 같은 분들에게 사정도 해봤습니다. 각 동마다 단 1대씩 있는 행정차량을 빼내갔습니다. 송인1동만 차량을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갖다줬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자치센터 시범 동으로 인해서 시범 동의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불편함과 불이익은 실로 심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區廳長께서는 우선 방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두가지만이라도 해결이 빨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고 취미교실 강사료와 행정차량 문제 등 긴급하게 조치를 해주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區廳長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가지로 결례가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정말 제가 의정활동 2대, 3대를 거쳐오면서 질문할 것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벌러왔습니다만 이 한가지만을 질문으로 대하고 마칠까 합니다. 감

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金正大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吳錦南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錦南議員 吳錦南議員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화합과 결속으로 행정부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洪承台議長님과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20만 종로구민의 새로운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종로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鄭興鎭 區廳長님과 盧張鐸 副區廳長님! 局·課長님! 또한 1,300여 종로구청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을 불과 20여일 남겨놓은 너무도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종로는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수도 서울의 제일 구 나아가 21세기 세계 속의 제일 구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 나아가야만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처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 건수는 49만 4,281건에 체납액은 179억 1,582만원에 가압류 건수는 24만 5,353건에 88억 4,306만원이며 '91년도부터 '94년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 및 범칙금 시효 결손분 673건에 2만 190을 빼면 49만 3,608건에 179억 563만원으로 '98년 징수율 40.14%, '99년 10월말 현재 34.07%이며 주정차 체납분포를 보면 2회에 7,860건, 3~4회에 5,908건, 5~9회에 3,851건, 10~19회 1,422건, 20~29회 3,112건, 30~49회 212건, 50~99회 88건, 100~199회 18건, 200~219회 3건으로 나타남바 이는 실적위주의 단속이었던지 아니면 징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각 과장 사무편람집 소책자 발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종로구는 지금 5국 1소 1담당관 24과 19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급 인사이동은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과장이 그 직책에서 업무를 담당

했을 때 그 체험을 기록하여 편람집을 발간하게 되어 다음 후임 과장들이 그 체험담을 읽어보고 그 과의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을 느끼고 본인도 그 직책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소신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직책을 떠날 때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했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종로구 과장급 이상의 기록 보존으로 종로구는 대 주민 행정서비스가 더욱 발전되어 주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새 시대의 행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공사 및 시설 직무가 한 단계 높게 발전하여 그 분의 업적과 기록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며 구민들도 그 책자를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구정을 이해하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종로구를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워드로 작성하여 20장 정도의 소책자를 만들면 적은 예산을 들여 최대의 업무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되는데 區廳長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음력 15일이면 사직공원에 물려드는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겠습니다. 보물 제177호 소재지 종로구 사직동 산1-48번지에 위치해 있는 사직단은 예로부터 새로 나라를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되면 백성을 위해 사직단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예에 따라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도 그 4년 1395년 사직단을 건립하였고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곳에 잡상이니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위에 토벽을 쌓고 그 입구에 정문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음력 15일이면 어디서인지 아침 9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영부인이신 육영수 여사께서 사직 노인정을 방문해 경로잔치를 열게 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요즘은 약 삼천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주최측이 없는 망측한 놀이판이 벌어지게 되고 50~60대 여인들이 자리를 옮겨가며 노점판을 벌여놓고 술을 팔고 춤도 추면서 노인 분들의 흥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군데군데 모여 북, 장구, 팽파리, 전자오르간 등 가지각색의 노래와 춤이 시작되어 노인들의 호주

머리를 털어 내기도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음란한 행위들이 이어집니다. 바로 그곳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태민안을 빌고 풍년을 감사하는 사직대제 자리이며 인근에는 단군성전, 신사임당, 이율곡선생님 동상, 종로도서관과 배화대학교, 배화여중·고와 매동초등학교가 있으며 하루에도 수천 명이 다니는 공원이 대로변입니다. 문화제와 조상의 일이 숨쉬는 이곳에 무분별한 놀이장소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은 부정적인 시각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사직동 주민과 직능단체 회원들이 여러 차례 막아보려고 했으나 인원이 너무 많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새 천년 문화의 시대 문화일번지에 음란스러운 일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관민 합동으로 계몽과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區廳長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네번째, 서부 구립 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발전 개발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지사업으로 나가는 지름길인 동부는 늦게나마 구민회관이 2000년 2월경 준공을 앞두고 있고 동부 여성복지회관도 며칠 전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부라고 할 수 있는 혜화동에도 구민생활관이 마련되었습니다. 늦게나마 구민의 복지정책과 생활환경이 바뀌지도록 노력하신 구청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서부는 구민에 대한 전용체력단련장 하나 없으며 무악동, 교남동, 사직동, 효자동, 청운동, 평창동, 부암동 일대는 복지관이나 생활관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작 사설인 퀴빈수영장, 덕수수영장 등으로 오가는 처지입니다. '99년 중장기계획 영선 및 기타 투자사업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직동 산1-48번지 필지 외 1필지, 면적 3,826㎡ 약 1,159평의 재경원, 관리청의 산림청 부지가 있습니다. 서부지역의 구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정책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므로 구립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을 우선 순위로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새 천년의 아름다운 종로건설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주민복지 증진을 첫번째 목표로 한다는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서부지역 주민의 뜻이 바로 구청장님의 뜻과 같으리라 생각하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安載弘議員 질의와 같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보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건설교통부가 채권발행과 5년마다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보계획이 76건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종로구 예산으로 보상을 할 경우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區廳長님의 복안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서울시공무원 56.8%의 월급수령액이 최저생계비 미달자로 여론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 공무원 부인들 중 상당수가 보험설계사, 식당 아르바이트, 파출부, 신문이나 우유배달 등 직종을 가리지 않고 부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인사상의 가산점 부여는 물론 매월 지급되는 동근무수당 등이 있어 구청 직원보다 월 15만원 정도의 더 많은 금전적 혜택까지 주어져 능력있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직원이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에서 국민에게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근무하기를 매우 선호했으나 IMF 경제난 영향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악화 및 2000년 6월말까지 읍·면·동 기능 완전전환 방침 등 정부 구조조정 시행 후 현재는 인사상의 가점제도가 완전 폐지되어 우수한 직원은 동사무소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심하고 힘없고 말이 없는 직원만이 동사무소에 몇 년씩 장기 근무하므로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봉사행정 구현은 요원한 실

정이고 관리자인 동장과 계장의 권한도 대폭 축소되어 양질의 서비스 봉사행정 구현은 요원한 실정이고 팀제 도입으로 일사불란한 통솔 및 지휘체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시행착오 및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구청 각과에서도 동일한 통제의 문제점이 야기되는바 팀제 도입 속에서도 6급 계장 결재권 시행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며 극소수의 공무원으로 전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만 국가 경제가 IMF 사태 이전으로의 회복과 새 천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고 묵묵히 대민 행정을 위해 맡은바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區廳長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의 협조로 '97년 1월 21일 조례 제336호로 본 의원의 발의로 제정하였습지만 몇 년이 지나도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 종로구 65세 이상 노인은 현재 1만 3,871명 정도이며 매년 580명 정도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IMF의 어려운 경제난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노인복지 문제는 21세기의 복지산업이 기초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복안이 계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98년 2월 25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金大中 大統領께서는 '98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제2건국운동에 대하여 언급한 이후 '99년 2월 3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본격적인 IMF 체제 극복 및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시작한 거국적 개혁운동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운동일 것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청산하고 IMF를 극복하고 아울러 21세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하여 시작한 국민운동으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추진해야 할 국

가적 명제이며 이러한 의식생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름대로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는 우리 종로구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된 공식 위원회이기 때문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과 같이 필요한 예산을 당연히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 등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을 정액으로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건국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오히려 금년보다도 삭감된 사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區廳長님께서는 우리 종로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의식과 생활개혁운동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의식생활 개혁을 위한 제2건국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참석수당, 의식개혁 참여를 위한 홍보 팸플릿 지원 등 소요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종로구의 발전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새 천년을 불과 600여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실로 긴장되고 엄숙한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천년을 맞으면서 지난 세기에 우리가 반복해 온 잘못된 관행과 행태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희망과 번영의 21세기를 우리의 세기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吳錦南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李炯述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炯述議員 가회동 출신 李炯述議員입니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 한 세기를 마감하고 뉴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합니다. 2002년에는 우리 나라에서 월드컵 대축제가 행사되고 전 세계의 많은 손

님들이 우리 나라의 심장부인 우리 종로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88년 올림픽을 성공리에 끝마치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코리아 합성이 울려 퍼질 때 구소련 프라우다 기자 한 분이 88올림픽 취재를 다 끝내고 창덕궁의 비원을 관람하고 나오는 길에 창덕궁 돌담길 옆에 원서동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가봤습니다. 가보니 집은 다 쓰러지고 연탄냄새, 인분냄새 그 악취가 진동을 하고 다 쓰러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 이북에 사진 송고를 했습니다. 이북에서는 그 사진 송고를 보고 남한의 왕궁 옆에 다 쓰러져가는 집 인분냄새 나는 연탄냄새가 나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에 88올림픽은 거짓 행사고 거짓말로 남보기 좋은 행사고 대한민국 백성들은 거지가 우글우글 먹고 살기 힘든 이러한 나라에 산다. 북에서는 연일 TV,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한 사실을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 잘 듣고 아실 겁니다. 2002년 월드컵 행사를 치를 때 또한 외국 많은 관광객이 이 나라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불행스러운 곳이 바로 종로 관내입니다. 정궁인 경복궁과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이 사이에 있는 북촌마을은 우리 종로구민들이 우리 종로 한 지역을 봐서는 안됩니다. 이 지역은 분명히 대한민국 반만년의 역사문화를 자랑하는 이 왕궁 사이에 있는 아주 귀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북촌마을은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것을 잘 다듬고 가꾸어서 외국 손님이 오면 그 지역을 나쁜 곳은 보여주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치를 때 분명히 잔치에 온 손님들은 외국 손님들이 경복궁과 창덕궁을 드나듭니다. 그 사이에 있는 북촌마을은 꼭 지나게 됩니다. 이 곳을 지금 현재대로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88올림픽과 똑같은 모습이 재현됩니다. 이렇게 낙후되도록 둔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우리 종로구민에게 많은 책임이 있겠습니까는 지금 현재까지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집행부 여기에 책임이 분명히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번 다시 이 나라의 나쁜 곳은 5천년이나 되는 긴 역사 속에 문

화유산이 가장 많이 북촌 여기에 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문화사적지가 있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가꾸고 다듬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하시겠다고 합니다. 계속 본 의원이 이 장소에서 북촌 얘기를 하면 동료 의원들은 아주 진력이 나 버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9월 4일 고건 시장님을 만나 가지고 서울시 관계국장님과 함께 동석한 자리에서 북촌얘기를 했더니 고건 시장님이 이것이 참 잘못됐다 빨리 이것을 다듬고 가꾸어야 되겠다 해서 관계국장 및 예산담당관을 옆에 두고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종로구청 뭐 했습니까? 바로 이 장소에서 수없이 얘기해도 또 내년에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가장 존경하는 鄭興鎭 區廳長님! 청장께서는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에 그 중에 협의회 회장직 이 자리는 바로 시장님하고 거의 힘이 같이 있는 아주 큰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서는 모든 일에 능동적이고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아주 순발력이 대단하시고 하겠다고 마음먹어서 안된 일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청장님을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분으로 그렇게 옆에서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서는 대답은 잘 해주시는데 해가 바뀌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겠다고만 얘기하시지 진척된 과정은 못봐서 아주 유감천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천년을 마감하는 3주만 지나면 한 세기가 마감됩니다. 한세기 마감하는 이제 내년에 가서는 모두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청장님이기에 이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고 몇가지 북촌지역 가꾸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촌지역을 북촌이면 사직공원부터 해서 울곡로, 이화동, 대학로 이쪽 명륜동 다 들어갑니다. 방대하게 일을 치르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북촌과 돈화문 앞으로 해서 인사동 골목으로 해서 M자형으로 해가지고 지역을 좀 좁혀서 역사, 문화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주실

수 있는지 청장님께서 이를 중앙정부에 좀 가서 막중한 힘을 발휘해서 빠른 기일 안에 북촌관광특구 문화특구를 지정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이 북촌지역이 오랜 세월동안 한옥보존지구로 묶어서 그 지역을 잘 다듬고 가꾸어서 후손에게 물려주겠다고 그 지역을 한옥보존지구로 묶어놨습니다. 이 지역은 분명히 오늘을 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다듬고 가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이 북촌을 허물어도 좋다는 그런 북촌미관심의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유인물 뒤에 북촌마을 깊은 곳에 동주민들이 요정이 들어선다. 아마 이러한 것을 종로구청 청장님에게도 진정서를 드리고 서울시장 관계관에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형행법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북촌은 지금 계속 날로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 어디에 우리 주민들에게 있습니까? 이 집행부가 허물어져 나가고 종로에 아름다운 종로 가꾸기에 장애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모든 힘을 쏟아서 이 허물어져 가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본 의원은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장소에서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를 거론하면 또 저 얘기를 하는 구나 하고 아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어제 그저께 관계공무원 한분이 재동초등학교 주차장을 하는데 공사를 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2년, 3년이 걸린다 하도 그런 얘기할 때 본 의원이 좀 조사를 해보시오. 지질검사도 하고 공기문제도 하고 정말 학생들에게 공부에 지장이 있는 공사가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한번도 시원한 답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형건물에다 몇군데를 찾아가서 과연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파는데 공기가 얼마나 걸리느냐 하고 해봤더니 자료속에 보면 나옵니다. 때문에 방학을 시작하면서 신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학교운동장을 파가지고 뚜껑을 덮어

서 운동장을 원상태대로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밑에 내부공사는 그 차후에 해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촌마을을 잘 가꾸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원 담옆에 있는 창덕궁 옆에 있는 그 쓰레기적치물 외국관광객이 와 가지고 전부 사진 찍고 갑니다. 어디로 옮길 겁니까? 종로구청 청사 여기다 옮겨놓을 겁니까? 지하주차장을 파서 한군데 집어넣으면 아주 한쪽 부분에 들어갑니다. 재동초등학교 바로 운동장 모서리에 쓰레기적치물도 흙물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군데 집어넣으면 깨끗해집니다. 고건 시장님께서 걱정이 돼서 가회동 골목골목 길을 가보셨답니다. 가보시니 원서동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바로 비원 돌담길 옆에 있는 겁니다. 고건 시장님이 저기 멀고 먼 수만리 어느 중동 나라 도시에 갓을 쓰고 있는 그런 꼴이 북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계속 방치하고 법만 법이 이러니까 이리 해야 되겠다. 법이 그러니까 망가뜨려도 괜찮겠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고 분명히 북촌은 잘 다듬고 가꾸고 청장님 항상 말씀하신 아름다운 종로가꾸기 일부본입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의 심장부고 역사가꾸기에 가장 중요한 북촌마을을 보다 이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서울시장님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셔서 시장님 마음 먹으면 가능합니다. 내년 중에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청장님의 답을 듣고자 합니다. 외부에 나가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대한민국 종로에 산다고 하면 아주 좋은 지역에 산다고 합니다. 종로 중에서도 경복궁과 창덕궁은 궁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종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은 흥분입니다. 그래서 북촌마을이 양반촌인 북촌마을 대축제를 연중 행사로 매년 양반행사, 쌍놈행사, 왕 행렬행사 이러한 좋은 행사가 많습니다. 강원도 단오행사도 아주 잘 많이 하죠. 이 북촌행사는 종로가꾸기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북촌 대축제를 아주 성대하게 매년 치를 수 있는지 또 치러

야겠다는 청장님의 뜻이 있는지 답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원 옆에 있는 원서공원이 있습니다. 원서공원에 전통건물을 짓고 거기에 야외전통혼례식을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치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옛 풍속도 보여줄 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느 실내에서 하는 전통행사를 가봤습니다. 바로 덕성여고 있던 옆에 대원군이 살던 안에서 전통혼례식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때 바로 우리 앞에 계신 千相旭議員님도 같이 있었습니다. 외국관광객 차가 40명이 와서 가이드가 아무리 들어가자 해도 안가고 근 1시간을 사진 찍고 아주 보는 모양이 좋다고 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외국관광객이 바로 비원 창덕궁 앞에 돈화문 앞에 보면 매일 줄을 이어섭니다. 그 온 관광객이 전통혼례하는 모습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볼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시장님 보고 말도 한 두필 사달라고 하니까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말 타고, 가마 타고, 피리 불고, 나팔 불고 거기에 무료로 시민들이 와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잔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며 연일 아주 TV에서 와가지고 방영을 해주면 구경하고 이러면 바로 그것이 관광명소로 세계적인 관광명소의 자리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요구를 했더니 아마 여기 담당직원이 서류만 집어던져버린 것 같아요. 현대건설에다. 그 답이 온 것이 4개 회사가 연계해서 안된다 이겁니다. 말이 안됩니다. 그 원서공원 일부는 종로구청 소유로 넘어와 있습니다.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잔치를 치르면 나머지 공원에 사람 들어가는 것을 현대에서 막을 겁니까? 공원에 사람 들어가는 것을 내쫓을 겁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추진을 좀 앞당겨서 2002년 월드컵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잔치를 할 수 있는 시설과 모든 것을 청장님께서 앞당겨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회동 전체에 본 의원이 전 지금 시장님이 아닙니다. 어느 시장님 보고 북촌은 대한민국의 잘 가꾸어야 될 지역이니까 잘 가꾸려고 할 것 같으면 전기, 전화 위에 있는 지주

선 위에 있는 거미줄같은 선을 전부 지하로 묻어라. 그랬더니 몇년전 어느 시장님이 꼭 하겠다고 해서 우리 북촌마을 15만5천평 되는 전주민에 서울시장님 저것으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해주겠다고. 과거 시장님이 정말 옳은 일을 할 것 같으면 뒤에 물려받은 시장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장인 청장님도 앞서서 이 점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을 우매한 답이지만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개선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종로관내에 16개 주거환경개선지구 중 5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5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보면 한결같이 주거 개악이지 주거 개선이 아닙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이 법 자체가 10년 전에 만들 때하고 지금 환경하고 많이 틀려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시정해 나가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일단 도로를 전부 뚫어놓고 건축허가를 해주면 주거환경이 조금 달라집니다. 기왕 돈을 투입할 바에는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로부터 전부 뚫어놓고 집을 짓되 그 돈도 기왕이면 다른 예산을 뺏겨 가지고 그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청장님께도 우리 주민하고 몇차례 가서 직접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파란 색깔 칠한 부분이 폭이 1m50 대지폭입니다. 넓은 곳은 3m 평균치가 대지 2m밖에 안됩니다. 주거환경개선법에 20㎡면 한 6평반이 안됩니다. 이 대지에 꼭 집을 짓고 살라고 그러니까. 이 길이가 8, 9m 되고 폭이 2m되는 여기다 집을 짓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주택과 공무원 목을 다 자른다고 그래요. 이러한 법도 악법도 꼭 지켜야 됩니까? 그 힘 좋으신 청장님이 어떻게 이런 악법을 계속 지키도록 됩니까?

(「시간 넘었어요」하는 議員 있음)

시간 넘은줄 압니다. 바로 이 자리가 본 의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여기 첫장에 앞에 보면 李炯

述議員은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죄인이 될 것입니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나라 최고 학자가 한 얘깁니다. 역사학자가 왜 그러나 북촌을 잘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래서 북촌을 제가 제일 아끼는 의원이라는 저것으로서 여기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 북촌이 흑역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 의원이 북촌마을에 사니까 제 동네 이기적인 지역 이기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하시나 그런 뜻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북촌은 분명히 어느 종로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가장 소중한 잘 가꾸어야 될 자리에기에 한세기가 마감되는 이 차제에서 꼭 북촌마을을 잘 가꾸어 나가도록 그 충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료 의원 간에 다른 것은 좋습니다.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에 동료 의원이 시간되었다고 재촉해 가지고 내려오도록 하면 의원들로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해주시고 본 의원이 몇가지 거듭 반복되는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속시원하게 다음 세기를 맞이하는 그 때는 북촌이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가꾸고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지역이 될 수 있겠다는 좋은 답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북촌계획단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로구청은 서울시에 일부 북촌 잘 가꾸는 계획단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서로 연계되어 가지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종로구청 내에 상설계획단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답을 주시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洪承台 李炯述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劉燦鍾議員!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奎議員 議席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劉燦鍾議員 구정질문에 앞서서 李東奎議員이, 시간 오버된 것은 제대로 해주십시오. 의장님께서 그러시면 안되죠. 다른 의원님들)

았으시라니까요. 질의해요. 1분 늦은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劉燦鍾議員! 질의하세요.

(○李東奎議員 議席에서 - 제재를 해주셔야지)

○劉燦鍾議員 안녕하세요? 劉燦鍾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洪承台議長님을 위시한 吳錦南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풍요로운 종로 가꾸기를 만들기 위해 실사구시의 자세로 창의와 비전을 우리 종로구민에게 제시하시는 鄭興鎮區廳長님과 1,425명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구청직원 자세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천년은 12월 31일 자정에 광화문의 폭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인터넷이며 정보통신으로 이미 그 막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N세대로 지칭되는 네트워크 신세대는 일상과 의식속에 새천년의 기재인 상상력과 지식사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종로구청의 홈페이지와 구청장님 홈페이지를 하루에 몇번이나 살펴보고 계십니까? 개인 노트북을 갖고 계시다면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업무 중에 전자결재를 하시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먼저 전구청 1직원 IPC를 지급하고 각자 E-mail 주소등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E-mail 주소를 부여, 쌍방향 구청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민들을 위한 1가정 인터넷 PC 보급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정보공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물론 친절한 전화응대, 공손한 태도 등 행정서비스가 공무원 친절도에 있어서는 우리 종로구가 상위를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구민이 필요로 하고 또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행정정보를 갖고 공무원의 존재 기반으로 삼아 재량권을 남용 주민들에게 선심 쓰듯 하거나 지연시키는 식의 행

태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공무원에 대한 자신감 결여가 가장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극히 일부겠지만 세상은 변화, 발전하고 있는데 자기계발은 등한시하고 단지 범조문만을 맴도는 마치 그것이 큰 노하우인양 민원인들에게 유일하게 우위를 점한다고 잘못된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공무원 본연의 임무라 할 수 있는 대국민 행정서비스는 뒷전이고 한줌의 정보로 주어진 틀 안에서 안주하며 구민 위에 군림하려 든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시설 등 외형과 제도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운영할 사람의 의식의 변화가 없는 한 공무원의 신뢰 조성은 요원하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은 공무원이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와 더불어 자기 계발을 위한 여건조성에 구청장님께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등을 준비하기 위해 관계직원들께서 밤잠을 거르며 한보따리의 서류몽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 비상이 걸렸다는 말로 표현되듯이 문제 제기가 많은 의원들에게는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관대한 의원님들께는 그렇지 않겠지만 필요한 서류도 대강대강 꾸민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한 방안으로 본 의원은 항시 감사나 조례의 제정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의원 전원에게 노트북을 지급하여 행정 네트망을 활용 의원님들이 원활한 정보와 행정을 실시간에 받아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는 의원의 해외시찰 등을 활용하여 구입비 등으로 전환해봄직도 한데 물론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들을 소리지만 여러 나라의 실정에 대한 것은 인터넷 속에서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투명한 행정 공개와 진행사항 등의 사전 검토 등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종로구 직원 여러분들의 불요불급한 업무시간을 많이 단축하여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에 좀더 할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어떤 기업을 방문하더라도 우산을 넣을 수 있는 비닐을 현관에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구청, 동사무소 등 관공서를 드나들다 보면 이러한 것을 비치한 곳은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이러한 사소한 마음씀씀이 하나라도 직원들의 감각과 여유가 없었다면 쉽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하지 않은 손님을 맞는 주인 입장이 아니라 찾아오는 손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심한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리의 도시미관은 인간, 인공구조물, 자연적 조건 등이 한데 어우러져서 문화의 분출을 자아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구한 전통의 중심지는 종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역사성만큼이나 독특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젊음의 역동적인 힘과 삶의 끈끈한 냄새가 묻어나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견고싶은 거리 조성계획이 한창 논의되고 있는 이 때에 자칫 무질서하게 난립된 노점상을 정비하여 소규모 지역상권을 구하고 그 한편으로는 고층건물의 신축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가로수의 수목 등에 있어서도 종로를 대표하고 운치있는 향토수종으로 교체하는 것도 연구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 정비와 가로수 수종 변경에 대한 종로 미관 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번째 질문입니다. 송월동 기상청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와 부속건물은 구 소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상청 이전 직후 시와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교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담당자의 개인 의견 개진 수준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전혀 힘이 실리지 않아서 그랬는지 요즘은 유야무야 별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또 문제 제기를 하면 그때 가서 전화나 한두 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입니다. 이

러한 업무추진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기획추진단을 구성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법률의 체계적인 자문을 구하고 사전 정비작업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부지 활용 방안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의 명분을 구축한 후에 서울시와 정식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區廳長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구청직원들의 모습으로 인해 아름다운 종로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천년이 불과 한 달도 채 못 남은 이 시점에서 전반에 걸쳐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종로구의 꿈과 희망의 새 천년은 직원 여러분의 어깨 위에 달려있다고 보았기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뜻으로 작은 허물이라도 들춰낸 점 너그러이 해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劉燦鍾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鄭泰淳議員!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泰淳議員 광화문에 위치한 정치1번지 중의 1번지라고 하는 청운·세종로동 출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의 주인공 달리는 해결사 鄭泰淳議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洪承台議長님과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종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鄭興鎭 區廳長님과 盧張鐸 副區廳長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종로를 사랑하는 18만 6천 종로구민과 청운·세종로동 주민께 인사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회사무국 직원, 그리고 끝까지 행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더욱 분발해서 종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대 의원을 거쳐 제3대 의원이 된지 어언 1년 4개월

이 지나는 길목에서 종로구의회 의정단상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니 감개무량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모든 면에 부족함이 더 많은 저를 믿고 당당하게 당선시켜 주시고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의정단상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존경하옵는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보답하기 위해 구두 뒷굽을 여러 번 갈고 오토바이 타이어를 두 번이나 교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고싶어 노력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행동으로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는 의원이 되고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신설동 수도검정고시학원에서 새벽4시부터 8시 10분까지 강의를 듣고 틈틈이 열심히 공부해서 금년 '99년 7월 30일에는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하고 11월 12일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이는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들어주신 존경하옵는 모든 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은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몇%나 달성하셨는지 그 결과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인구증가의 획기적인 복안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돌아오는 종로'를 슬로건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동안 5천미만 행정동 통합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거 세종로동은 재개발이 끝나면 7,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청운동과 통합되고 선거를 통해 저는 구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세종로동은 사직동에 흡수되어 행정동명도 없어지고 세종로동 주민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허탈하고 아쉬움과 소외감 때문에 사직동 주민과 물과 기름처럼 융화되지 않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종로동이 없는 청운동도 청운아파트가 철거되면 11개 동 571세대 2,000여명의 인구가 줄어 또다시 통합합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청운동민은 물론 지역의원인 여기 있는 저는 본의 아니게 네 번이나 고통과 상처를 입고 그 후유증 또한 감내하기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통합 이후 지금까지 저를 만나는 분마다 통합문제를 추궁합니다. 당면 현안 고층의 실례를 들면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자기를 뽑아준 주민들께 보고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청운동과 세종로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청운동이 사직동으로 흡수되었지만 청운동 주민들은 저한테 1년 내내 무엇을 했냐고 의정보고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러한 입장에서 청운동 주민을 상대로 의정보고회를 한번 갖고 세종로동에서 세종로동 주민을 상대로 의정보고회를 가져야 하는 이러한 상황을 청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른 단추가 줄줄이 잘못 끼어지는 것처럼 재개발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인구가 적은 세종로동사무소를 청운동과 통합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사직동사무소에 흡수시키고 청운동도 아파트가 철거되면 11개 동 571세대 2,000명의 인구 감소로 타동과 통합해야 하는 문제가 또 발생될 것입니다. 사후약방문식의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되기 전에 청운아파트 자리 1만여 평 대지 위에 현재 종로구청에 접수된 청운아파트 재건축조합원 125명의 명의로 제출된 재건축사업계획(안)을 심도있고 주도면밀히 검토해서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강력히 촉구하면서 청운동 재건축이야말로 '돌아오는 종로'에 부응해서 일거삼득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로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둘째는 명문학교가 있는 청운동은 경북과 청운학교가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 서로 전입을 오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는 들어올 주택이 없습니다. 이에 부응하면 인구는 획기적으로 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해서 행정 동사무소가 폐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지역에는 다른 동료의원께서도 질문 하셨지만 풍치지구가 종로구 면적의 12.9%에 달합니다.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본 의원은 순서상에 있는 질의 기 때문에 질의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치지구 내에는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규모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보면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구청과 경찰에 고발되고 끝내는 경찰에서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선량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주민들이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에 임한다면 사전에 그러한 예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우리 구역에는 한시적으로 상세구역을 선정해서 '96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남, 경복궁, 동대문구역이 아직까지도 가시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까 동료의원인 金正大議員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행정동이 통폐합된 데 대해서는 깊은 골 때문에 주민이 화합이 안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보고를 들어서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러한 문제는 주민만이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주민의 가슴에 상처가 크고 깊기 때문에 주민들이 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시고 주민들이 옛날처럼 한가족 이웃이 되는 그러한 바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년의 구청장 직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과의 공약사업과 구민의 숙원사업, 크고 작은 민원에 이르기까지 전담 부서를 만들어 토털 서비스 할 수 있는 신속정확하고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구청질문을 경청해주신 이 자리에 앉아계신 방청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6,000여 명의 종로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새 천년을 여러분의 힘찬 보람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구청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鄭泰淳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東奎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奎議員 존경하는 洪承台 議長님! 吳錦南 副議長님! 그리고 평소에 덕망과 신망을 갖추신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19만 종로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24시간이 부족하여 25시간 뛰고 계신 鄭興鎭 區廳長님! 그리고 盧張鐸 副區廳長님! 그리고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를 마감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창신3동 주민을 대신하여 구청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구의 행정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이 얼마나 제고되었는지, 그리고 주민의 알 권리를 얼마나 실현하였는가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알찬 봉사행정으로 보다 발전적인 구청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8년 정기회 구청질문 시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봉계타운을 건설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종로구 중장기계획에 포함은 되었지만 IMF라는 뜻하지 않은 경제 환란에 부딪혀 부지 선정조차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합하여 375억원으

로 편성하였다고 구청장님께서 시정 연설한 바 있습니다. 2000년에도 무엇보다 먼저 봉제타운과 근로자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신3동 관내 1,950여 평의 기동대가 점유하고 있는 대지를 우선 수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만 창신3동 해발 70m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사면이 깎아지는 절개지와 옹벽이 산재해 있는 전형적인 서울의 달동네로써 종로구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동네 한 가운데 경찰부대가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택가 한 가운데 경찰기동대가 위치함에 따라 주민들 가질 수밖에 없는 이질감, 아침저녁으로 할 것 없이 수시 훈련에 따른 어린이 및 수험생들이 갖는 소음공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딸 가진 부모들이 가져야 하는 불안감 및 무더운 여름철에 사생활 위축 내지는 제약, 기동대원 수송용 대형버스의 수시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불안감, 경찰부대가 소재함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대규모 재개발 추진 장애 등 경찰부대가 동네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아야 하는 유형, 무형의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창신3동의 많은 주민들이 동네 한 가운데 경찰부대가 위치한 것이 우리 창신3동 말고 서울시에 또 있는지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인사 한 사람 거주하지 않는 동이라 해서 그렇다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 존경하는 우리 區廳長님께서 창신3동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본 의원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신3동에서는 경찰기동대의 이전을 위하여 주민 서명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만 종로구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동대의 이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기동대가 이전하고 나면 그 건물은 봉제타운이나 근로자 아파트 또는 주민복지센터로 개조하여 활용하던가 대규모 재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렇

게 되면 창신3동은 면모를 일신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 봉제공장 종사자와 근로환경 개선, 시민 경제의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신3동 마을버스 연장 또는 노선 신설 운행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동 주변 5만 5천여 서민들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신3동 9통, 13통 일대의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고개를 넘어 낙산 삼거리까지 10여분 동안 걸어가야 하는 등 이 지역 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도심 한 가운데 부모를 모시는 자식이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 돌아가셨는데 시신 하나 치워 나갈 수 없는 그런 동네인 것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런 동네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대창운수 마을버스가 기왕에 운행하고 있어 낙산 삼거리에서 가정복지관까지 250여m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그리고 교통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마을버스 연장 운행은 꼭 실현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일정별 세부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살기 좋은 종로 그래서 돌아오는 종로, 더 나아가 아름다운 종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문제의 해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과제라고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해결을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기로 처리하기 위하여 종로구가 시범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 및 운영 미숙으로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은 업체나 연구단체에 연구 의뢰하고 그 결과를 꼼꼼히 따져서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 그리

고 소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발생 총량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지 다듬기와 규격포장 출하를 유도하여 쓰레기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규제 감량하는 시민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쓰레기 처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쓰레기 배출량 및 총량을 세밀하게 조사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대한 민영화하고 직영은 고지대 등 수거 여건이 어려운 지역과 비상시에 대비한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대행화는 '98년 구정백서 자료에 따르면 면적비 16%로 되어 있습니다. 85%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장실 청결문제, 개방문제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2000년 ASEM과 2002년 월드컵을 원만하게 치르기 위한 노력을 관광 편의를 위한 지도 제작과 지구지정도 물론 좋지만 그 보다 먼저 국내의 관광객이 화장실을 찾지 못해 호텔로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매킵에서도 지적인 바가 있지만 화장실 개방 운동과 청결화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생업소와 주유소 등 지도감독권이 있는 건물의 화장실부터 개선하여야 하며 내집 화장실처럼 항시 청결히 관리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화장실의 편의용품은 반드시 비치하도록 지도하고 화장지 등 편의용품 분실시는 바로 보충하여 시민이나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저희 창신3동 지역어르신들께서 저 뒤에 많이 와계십

니다. 저를 잉태하시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해주신 우리 지역어르신들에게 먼저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을 앞당기고 고품질 고효율의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우리 종로구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의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李東奎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弼根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弼根議員 혜화동 출신 吳弼根議員입니다.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인 21세기를 대비하는 20세기 마지막 종로구의회 정기회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종로 발전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혜화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종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鄭興鎭 區廳長님! 盧張鐸 副區廳長님! 각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본 의원의 의정활동 관심분야이자 종로가 해결해야 될과제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종로구 쓰레기적환장 설치 운영과 관련한 청소업무 민간이양 방안과 종로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의 주변 정리와 순라길 솔나무숲 재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아름다운 종로 건설을 위하여 종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 구정질문의 주요 요지입니다. 李東奎議員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적환장 설치 운영방법의 개선과 청소업무의 과감한 민간이양을 촉구합니다. 구에서는 야간에 간선도로상이나 주택가 골목에서 쓰레기 이적작업을 위해 모두 18개소의 쓰레기적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마는 본 의원은 먼저 쓰레기적환장 중 가장 문제가 많은 혜화지하철 입구 쓰레기적환장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혜화지하철역은 청소년의 만남의 장소이자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를 상징하는 대학

로의 관문이라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주도할 젊은 이들이 찾는 대학로의 관문인 혜화동 지하철역 입구에 쓰레기적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쓰레기적환장을 선정할 때는 문화유적지, 주요 시설, 도시미관,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이 기본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혜화지하철역 입구도 쓰레기적환장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선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구청의 행정편의로만 설치 운영되고 있으니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셔서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한해 청소행정부로 5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세입은 고작 9억원으로 48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구민이 낸 세금이 소중하게 쓰여져야만 합니다. 적자만 보는 쓰레기 수거업무를 과감하게 대행업체에 민간이양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문화유산의 주변환경 정리와 순라길 솔나무숲 재현을 촉구합니다. 600년 정도의 종로에는 국보인 원각사지 10층석탑을 비롯한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69개소의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는 종로가 우리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임을 알 수 있으며 종로구 한국문화의 얼굴이자 상징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이를 유네스코에서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종로와 창덕궁에 외국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한국의 고전문화를 이해하려는 수준 높은 관광객임을 아셔야 합니다. 종로의 문화탐방 코스로 종로와 비원간의 순라길을 '98년에 확정하 마 있습니다마는 도로확장 당시 주변의 노후된 건물과 허름하게 지어진 천막 등에 대해 정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이는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귀한 문화재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순라길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순라길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하여 약간의 돈만 들여서 소나무 숲을 재현시킨다면 관광객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옛것을 알릴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순라길에 소나무숲을 재현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관계국장께서는 순라길 주변 현장답사를 실시 후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걷고 싶은 종로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에서 가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으로 19만명의 단속원에게 연간 2억 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단속원들의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는 2천여 만원, 부당이득금 수익은 800여 만원으로 모두 2억 8,0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통계대로라면 '99년에 노점상이 890건, 노상적치물 21,024건을 단속했다고 하니 종로에는 노점상이 없어야 하고 노상적치물이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은 자꾸만 늘어나고 노상적치물이 많아지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분석해보셨습니까? 종로가 노점상의 천국이라 하여 인천, 성남, 안양, 의정부에 사는 사람까지 종로에 원정와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노점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민들의 보행권은 박탈되며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고 있는 종로주민의 상권이 침해받는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에서는 투자비에 비해 효과가 미비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시 예산편성의 적법성을 검토하겠지만 노점상의 리어카와 노상적치물에 걸리적거리지 않고 종로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가로환경정비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19만 종로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鄭興鎭 區廳長님! 아름다운 종로거리는 구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쓰레기적환장의 설치 운영과 관리 철

저, 순라길 등 문화재 주변의 환경정비, 돈 적게 들고 효과가 큰 순라길 소나무숲 재현 및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때 종로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종로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24일만 지나면 2000년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온 국민은 부푼 가슴을 안고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 때에 옷사건 등 몇 사건에 끌려다니면서 개혁과 국민적 통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희망과 기대를 가진 국민에게 무력감을 안겨주는 정쟁이 사라지는 사회, 국민을 위한 위민행정의 정치가 펼쳐지는 새 시대를 기대해보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혜화동 지역주민 여러분!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새천년에는 하시는 일 만상형통하시기를 빌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吳弼根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玄壽漢議員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玄壽漢議員 먼저 이 자리에 질문하게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洪承台議長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먼저 金以煥議員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제 질문 순서가 어제였습니다마는 제 개인 사업사정으로 못하고 오늘도 기회를 안주시나 했더니 이렇게 주셔서 제가 나오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8번째 섭니다. 희망을 갖고. 그러나 번번이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1세기를 마지막 보내면서 희망을 갖고 몇 가지 건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 때나 이런 때 관계공무원께 물어 보면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하는 일관적인 대답입니다. 희망을 갖고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새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정경유착이다 해가지고

하는 애기와 우리 종로 건축과 관계공무원들은 민정유착이다 하는 데서 이런저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면만 보고 책상에 앉아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95년, '99년에 건축법이 자꾸 바뀌면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문제점을 하나 제기해보겠습니다. 구청장이 방금 들어오셨지만 저희 세검정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할구역으로 볼 때는 평창권역이라고 합니다. 평창권에는 홍지동, 신영동, 부암동, 구기동, 평창동 5개동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수원 지역이었는데 6·25사변 이후 그 주택난에 허덕일 때 ICA 자금을 가지고 택지조성을 해서 그것이 석축으로 10m, 20m 높이 쌓은 대지 소규모 분할지역입니다. 이 지적도면에는 축대를 쌓았는지 경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도면만 보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내줍니다. 문제점은 여기서 매년 발생하는 게 우기때면 폭우로 인한 석축이 붕괴됩니다. 집들이 붕괴됩니다. 왜냐, 석축에 옹벽공사를 하게 하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주는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안합니다. 작년에도 여러 건 그런 피해가 났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하고 건축허가를 내줘라 해가지고 여러 번 제가 한 2년동안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다. 또 한가지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0 몇 년동안 재개발을 위해서 추진해온 지역에 금년봄에 처음으로 그 지구의 풍치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이 틈을 노려서 단독 고층건물이 들어섭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왜 내줬느냐, 현장답사를 안했기 때문에 도면만 보고 내줬다 합니다. 여기에 재개발 추진해서 지구지정을 곧 받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 재개발이 암초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조항만 가지고서 민정유착이 될까봐 못나가게 자꾸 그 법규만 고쳐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나오는 현상을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건축법 23조나 18조나 대행업무를 주는 지금 말하자면 감리죠. 가재는 개편이라고 건축주와 감리자는 가재와 게가

동일합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밑에 담당공무원들은 법규에 따라서 원리원칙만 가지고 일을 처리합니다. 조그만 유도리만 쥐도 앞으로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기에 제가 청장님이나 혹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자기 부하에게 이것은 내가 좀 책임질 수 있으니까 책임질 테니까 아량을 베풀어서 나가봐라. 담당공무원들이 나가보고 싶어도 3일 전에 통고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3일전 건축주에게 통고하는 것은 내가 몇월 며칠 나가겠다는 것은 민정유착을 막기 위한 건축법에 있는데 내가 몇월 며칠날 나간다고 하면 건축주한테 돈 얼마 쌓아놔 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차체에 우리 종로구는 평지지역입니다마는 평창권지역만이라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담당공무원들에게 그쪽에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현장답사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유도리를 좀 정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러 나왔습니다.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또 세월이 지나 봐야 앞으로 붕괴사고가 나오면 아차, 실수했구나 하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또 한가지 건의드릴 말씀은 앞서 어제 丁炳煥議員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정부에서 '80년도부터 서민층 대여양곡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담당공무원들 월급 적지 않습니까?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이 그 돈 몇푼 안되는 돈 몇만원 일십만원 되는 대여양곡의 회수금액을 받지 못한 이 서민들한테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지방에까지 나가서 그 사람들의 집을 찾아서 그것을 받으러 다녀야 되겠는지 지금 우리 종로구청에서도 아까 어느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 체납세액만 해도 몇백억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효결손 처리되는 자동차세나 취득세 등등 연간 엄청나게 시효결손 처리하면서 '80년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쌀 몇가마 보리쌀 몇가마 오래된 돈을 지금 이것을 구조조정에서 공무원 수가 줄어들고 동기능이 내년부터 마비되는 상황에서 이 엘리트 공무원들을 시켜서 지방 출장까지 가서 받아오게 하는 이 자체는 그래도 남아있

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 당시에 줄 때 주소, 성명만 써놨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습니다. 뭘로 어떻게 찾아 가지고 어떻게 독촉장을 발송할 것이며 어떻게 가서 돈을 받아올 것인가 저는 이 자리에서 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니까 이 농림부에서 '99 정부교환양곡 회수요령이다 해가지고 9월 30일자 각 구에 각 자치단체에 회부된 것을 봤습니다. 나, 이 농림부장관 골 빈 사람이 아닌가 했습니다. 이 앞에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회수를 해야 농업이 산다는 얘기겠죠. 이것은 쌀을 많이 먹어줘야 농민이 산다는 말과 동일한 얘깁니다. 제가 여기 농림부에서 내려보낸 양곡관리법시행령 중 제7조 양곡대여 4항을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여기간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상환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왜 여기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자치단체장 이하 농림부장관의 권한으로 결손처리가 안되는 이 상황인가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또 34조 권한의 위임에 보면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글썄, 시효결손처분할 수 있는 권한위임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통계를 내려보내면서 '80년부터 '98년까지 서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이나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가구가 2,589가구 금액으로는 2억 9,294만 9,000원 서울 전체가. 각 구에 저희 각 동에 몇년째 돌아다녀왔습니다마는 20가구 혹은 10개 가구 많은 데가 한 30가구 못 받은 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추적이 안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독촉을 해서 그 담당공무원들이 지방까지 출장가서 봉명서까지 붙이게 하는 일 이렇게 할 일이 없고 이렇게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농림부장관이 머리가 어떻게 되었든간 행정자치부가 있으면서도 이러한 제도를 개선을 못하고 있다 이거야. 나 행정자치부가 왜 존재하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차체에 지금 아까 건

축허가에 대한 문제도 구청장의 재량이 있겠지만 우리 구청장께서 한 번 더 생각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제가 이 몇년 동안에 국회관련 의원들한테 몇번 건의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치단체장이 결손처분이 안되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라. 결손처분시켜달라. 이게 뭐냐, 바쁜 시간에 말단공무원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지금 서울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까지 미회수금이 2억 9,294만 9,000원 이것이 총계입니다. 뒤에 쌀, 보리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리쌀같은 것은 서울 전체총수가 5가구 60만 2,000원입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행자부에 왜냐,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시니까 아까 한시법인 주거환경개선법도 앞장서서 국회에 건의한 것도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장서시고 이러한 것은 전국적인데 이것 한번 당장 처리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30일로 동기능이 마비되는 마당에서 이것까지 공무원들에게 또 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관계공무원들,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께 같이 여쭙보겠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해주시려고 그래요. 다 들어주려고 그러고 2000년 6월 30일로 동기능이 전부 전환됩니다. 복지센터로. 각 동네에 복지센터 들어나는 거 좋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장도 장사를 해서 우리 구를 원만히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자립도가 66%입니다. 시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어찌 동청사가 없어지는데 동청사 짓겠다고 부지매입비가 들어오고 동청사 신축하겠다고 예산편성이 되고. 나 이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있는 동 복지센터 만들고 부지 사가지고 또 신축을 해가지고 복지센터를 또 만들 겁니까?

(○金福同議員 議席에서 - 議長! 시간 다 됐습니다)

우리 재산 재정 여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도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청장님이 뭐 1위, 뭐 1위, 친절도도 1위. 이런 자랑을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게요. 저는 지방에 제 재산 관련 일이 있어가지고 안성시청, 여주시청, 강릉시청, 홍성시청, 파주시청을 1년에 2~3번씩 갑니다. 정문에 민원실 들어오면 안내양이 있습니다. 나 뭐 하는 안내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議員들 들어와도 인사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가니까 안내소에서 전화 받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어디 어디로 가라고 전부 가르쳐줍니다. 또 그 부서에 찾아가면 무슨 계에 갈지 모르니까 물어보기 전에 먼저 본 공무원이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왔다고 그러면 어느 계까지 안내해주고 어느 부서까지 안내해주고 담당자까지 안내를 해주면서 의자도 내줍니다. 우리 종로구청 지금 이 본청 근무자들은 청사가 좁아서 자기 자신들의 앞뒤 자리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비좁은 자리이기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방에 갈 때는 잠바 입고 갑니다. 의원 티 절대 안 냅니다. 우리 구청 각 부서에 갈 때는 꼭 정장을 하기 때문에 뺏지를 답니다. 물론 공무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하느라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 힐끗 쳐다보면 그만입니다. 그럼 앞의 안내소에 저게 뭐 하는 여잔지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전화만 받고 있어. 무슨 전화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친절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구청은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사무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선 인정을 해줍니다. 그나마 계장이나 과장들은 그래도 먼 발치에서 보고 쫓아 나와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안내를 합니다. 아직까지 밑에는 제가 그렇게 느낄 때 외부인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말씀 안 드리려다가 우리 존경하는 區廳장님이 의회주의자다, 의회신봉자다 말씀을 하시는데 1년 내내 얼굴 코빼기 한번 볼 수가 없어. 이런 구정연설이나 구정질문에 얼굴 한번 나타내고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 바쁜 시간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이 바쁜 시간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몇 가지는 질의했습니다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洪承台 玄壽漢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以煥議員!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以煥議員 이번 '99년도 우리 정기회 마지막 질의에 나선 金以煥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洪承台議長님! 그리고 우리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그리고 19만 우리 종로구민의 살림살이를 더붙어서 다 같이 잘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시는 鄭興鎭 區廳長님을 비롯해서 盧張鐸 副區廳長님! 그리고 우리 關係公務員 여러분! 특히 오늘은 우리 창신3동 유지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청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올해 3/4분기 GDP 성장률이 12%에 이르고 있고 실업률도 4% 떨어져 있습니다. 국내의 경제전문가들은 당분간 우리 경제가 5%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오히려 물가불안을 걱정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수치들은 우리 경제의 호전과 IMF 탈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반적 경기 호전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임금은 제자리걸음이고 일용직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한 노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IMF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다수 서민층들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경기가 나아져도 이들에게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의 경제 능력의 감소를 담보로 한 경기 회복으로는 진정한 IMF 경제 위기 탈출은 없음을 여러분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은 우리 구가 보다 알차게 구정 살림살이를 하고 보다 적극적 실질적으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동시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넓혀 국민화합에 기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통감하며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우선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 물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대부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란 매출액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점포 크기나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립기반구축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슨 능력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모호하고 불충분한 선정기준으로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대부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보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주민이 직접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서 특별히 눈여겨보지 않는 한은 이러한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조차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신청기간이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에 불과했음에도 종로구 홈페이지는 9월 1일에야 '소득지원 사항'을 게시했습니다. 소득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항에 대해 물겠습니다. 종로구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7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급조되거나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벤처기업이 있어 기금의 목적 외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제 대출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에서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유망 중소기업이 융자금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주요사업에 관련하여 물겠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창구를 취업창구화 하겠다고 했는

데 실제 몇 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습니까? 또 실제로 일자리를 얻은 경우는 몇 건입니까? 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그쳤습니까? 정규직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낙원동과 창신동 등 자생인력시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안전 관련에 관해서 물겠습니다.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부도덕한 업주와 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비리와 관리 부실로 대형 화재 및 붕괴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노후 불량시설 및 재래시설이 적지 않아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형편입니다. 우리 구가 실시하고 있다는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활동을 보면 현장확인 날 지정운영, 체계적 안전점검 연 8회 실시, 현장 안전처리반 등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현장확인 날 지정 운영을 보면 그 조사대상이 위험시설물, 수방시설물, 도로시설물, 녹지훼손 등 다양하고 간단치 않은 것인데도 단 3회 실시에 329건, 즉 하루에 110건을 적출했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면 아마 우리 주민들은 매일매일 우리 동이나 우리 구의 환경이 눈에 띄게 변하는 모습을 보아야 할 터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 앞의 불법 쓰레기 투기장조차도 며칠이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 확인의 날 지정 운영을 비롯한 안전관리 활동이 수박 겉핥기식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 도시와의 우리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문화교류는 선진국과 문화, 행정, 경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훌륭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속 없고 무분별한 해외교류 및 문화사업 시찰이 관광성 외유로 비쳐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

니다. 이는 교류의 효과가 구청이나 공무원들에게만 그치고 주민들에게까지는 파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1년여의 준비를 거쳐 지난 6월 펜실베이니아주 랭카스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랭카스터시와의 교류 방향은 무엇이며 교류의 혜택이 주민들에게까지 파급시키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 전반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우리 구의 '99년 재정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18.7%가 줄어든 1,246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71.1%였습니다. 중앙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 감소로 재정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재정의 건전성과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세출예산 구성내역을 보면 우선 전체 예산 중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8년의 58%에서 67%로 크게 늘고 결과적으로 사업예산은 39.8%에서 29.6%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은 종로구가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강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조직유지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는 비난을 부를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행정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재정 금액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규모는 '98년에 비해 17.3% 증가했을 뿐 아니라 그 액수도 260억에서 30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 예산을 집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지방세 착오 부과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99년 우리 구의 지방세 착오부과액이 11억을 웃돌았습니다. 11억 4,400만원 착오 부과는 납세자의 행정불신을 심화시키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착오부과는 공무원 여러분 개개인의 착오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겠지만 세수증대를 위해 무리하게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부과 여부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과세자의 입장에서 독단적으로 우선 과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는 제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20여일 후면 새 천년이 시작됩니다. 2000년대 국가와 기업과 개인의 운명은 정보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서서 정보화를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과 지식 사회건설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보화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 출발점으로 우선 두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구청은 물론 아동 및 여성복지회관, 도서관은 주민들이 컴퓨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 제반 시설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동네 PC방에 가듯이 도서관이나 구청에서 컴퓨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 안목을 가지고 인터넷 도서관이나 복합문화센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구청, 기업, 주민이 합심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구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컴퓨터 강좌를 강화해야 합니다. 수지침, 한문교실, 꽃꽂이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정보화의 시대적 흐름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정보화교육을 우선 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결산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이 쓰일 곳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감시 감독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재정 운용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과 열악한 환경에서 예산의 심의 의결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예산 결산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결산 과정에서 내실을 기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결산제도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자체가 예산을 잘못 집행했을 경우 기초의회가 담당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청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결산과정에서 주민소환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결산 결과를 주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역신문들에 공개하고 주민들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경우 책임자를 소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일본은 기초의회에 감사사무국을 두어 기초의원들이 수시로 예산 집행과정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주요 市들은 의원들에게 하자있는 집행에 대해 고발과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기는 하지만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결산제도의 내실을 기해줄 뿐 아니라 정치1번지로 종로구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구가 되게 해줄 것입니다. 셋째, 결산 심의를 임시회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주민 참여 부분으로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구 홈페이지 내용의 빈약성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낮은 이용률을 지적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내용이 많이 풍부해졌고 접속자수도 많이 늘어 명실공히 대 주민서비스 향상과 주민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다만 게시물을 보다 신속히 게시하고 우리 구의회가 만든 조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자치법규 부분의 내용을 제대로 갖출 것을 당부합니다. 또 다른 구와 비교하여 다양성 면에서는 서초구에, 자료의 풍부성 면에서는 중구에 다소 뒤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모니터제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모두가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지원없이 의원 혼자서 현실의 다양한 많은 요구들을 두루 섭렵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감하고 유급 보좌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모니

터요원을 위촉하여 상임위 별로 모니터 과제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각 상임위에 제공해 주는 구정 모니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李東奎議員 議席에서 - 시간 다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무슨 선거 운동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좀 발전하고 우리 의회가 잘 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깐 조금 늦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제는 의회가 주민의 요구를 보다 잘 파악하도록 하여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게 할뿐 아니라 종로구의 주민들이 모니터요원으로 동참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진작시키고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간을 초과하면서 이렇게 지루한 시간에 질의를 하게 돼서 약간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흐뭇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쪼록 20여일 지나면 새 천년이 돌아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일에 소원 성취하시길 기대해마지 않으면서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金以煥議員! 수고하셨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또 방청객 주민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일괄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00分 會議中止)

(15時00分 繼續開議)

○議長 洪承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區廳長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興鎭 區廳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鄭興鎭 존경하옵는 洪承台 議長님! 吳錦南 副議長님! 議員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1분의 議員께서 소상하고도 세세한 부분

까지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셔서 많은 질책과 충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바로미터로 삼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충분치는 않지만 의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11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李憲九 委員長님께서 먼저 새천년을 앞두고 구민화합과 단결을 위한 구단위 이벤트 행사를 비롯한 6가지 질문을 해주셨고 千相旭 議員님께서 삼청동, 청운지역 주거밀집지역의 풍치지구해제 추진계획의 촉구를 비롯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金正大 議員님께서 2000년 7월 1일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을 질문주셨습니다. 다음으로 吳錦南 副議長님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대책 등 8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李炯述 議員님께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개선대책 등 2가지와 劉燦鍾 議員님께서 새천년을 맞이해서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과 효율성에 대한 건과 3가지 질문을 주셨고 鄭泰淳 議員님께서 區廳長의 공약사업에 대한 구민만족도 조사 등 7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李東奎 議員님께서 창신3동 경찰기동대 이전 문제 등 4가지 질문 그리고 吳弼根 議員님께서 혜화동 지하철역 쓰레기 적환장 이전 문제 등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玄壽漢 議員님께서 건축허가에 관한 건 등 4가지 그리고 金以煥 議員님께서 저소득층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등등 9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희 간부들과 더불어서 숙의 해서 답변을 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드리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 상식선의 일이라든가 가미해서 답변 드릴까 합니다.

먼저 李憲九 市民行政委員長님께서 새천년을 앞두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구단위 이벤트 행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정부패에 휩싸여 있고 또 작금의 우리 나라 형편이 참으로 어

지럽고 해서 참으로 걱정이 크시다는 말씀 또 일본의 동경올림픽을 통한 커다란 국익을 창출해 낸 것에 대해서 우리 나라가 그렇지 못한 점 마치 국회질문 못지 않은 수준높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새천년 기념행사는 구단위로 큰 이벤트를 추진하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IMF를 당해서 저희 구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구민체육대회도 격년제로 치를 만큼 많은 행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을 2000년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해서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행사로 추진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3·1절과 8·15광복절날 종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오늘은 기쁜날 새천년 만세를 주제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전용종합시설로 건축하는 국일관 상향식도 제야에 맞춰서 거양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구의 예산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 행사일 것입니다. 또한 내년 2월 10일로 예정된 구민회관 준공식을 새천년맞이 축제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바대로 북한산, 인왕산, 동망산 새천년 해맞이 행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정부주관 새천년맞이 대규모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지만 역시 우리 종로구가 대한민국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12월 31일 23시부터 새해 1월 1일까지 02시 30분까지 세종로 등에서 추진 중이어서 우리 종로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행사라해도 우리 종로에서 이루어지는 이 새천년행사이기 때문에 매우 뜻깊고 종로와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행사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플래카드 단속이 부진하고 주민홍보용 플래카드가 연중 게시되어 거리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의향이 없는가 이것 역시 실생활에 부합되는 또 아름다운 종로미관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질문이십니다. 소생도 습관처럼 의원님들처럼 길을 가다가 도시 여러 가지

경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마는 그 기간도 훨씬 남고 훼손된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서 그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마는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은 많은데 비해서 걸이대가 태부족인 것이 종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번두리 구에 비해서 너무나 그러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림과 함께 일반민원용 현수막을 수용함과 아울러 주민홍보용 현수막도 현수막 걸이대에 게시토록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그 무질서한 현수막은 철저히 규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조례 개정으로 건물면적 1만㎡ 이상의 건물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왕산정 경로당을 확장할 용의가 없는지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왕산정 경로당은 '97년 4월 건립된 시설로서 건축당시 풍치지구인 점을 감안하여 건폐율 30%를 적용 2층으로 건축한 시설인데 말씀하신 대로 서원석 회장님은 우리에게 또 모든 이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 분이십니다. 효자효부상도 구에 주시고 또 향리에도 그런 일을 다년간 해오신 분으로 갑자기 소송에게 관악구를 가자고 말씀하셔서 같이 가게 되었는데 관악구에 있는 서울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을 보여주시고 우리 종로구에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인데요. 저희도 이 보험감독원이라든가 劉燦鍾議員께서 주장하시는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기상대 부지 등을 여러 각도로 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부지만 우리가 확보하면 시에서도 50%의 예산을 가져올 수도 있고 서원석회장님 개인적으로도 필생의 사업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후생에 남기기도 싶다는 그런 좋은 마음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이런 부지물색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동안 우리 종로구가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었던 것으로 구민회관도 이제사 완성된 때 서울시

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막대하게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내년 2월 10일 구민회관이 완성됨에 따라서 시노인통합사회복지관의 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부지런히 해서 우리 종로구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왕산정 인접부지는 공원용지로 되어 있어서 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군부대와 협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경로당 확장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거리쓰레기 회수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가로청소원 환경미화원 115명을 고정배치해서 1일 3회 이상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상가와 유동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종로 거리 외 주요 간선도로에 공공근로자 20명을 투입해서 특별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들고자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집중 배치 운영하고 이와 병행해서 휴지 담배꽂초 안 버리기 등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점을 시에 보고해서 지금 현재에는 도심 곳곳에 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플래카드가 게첨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먼저 실시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이 제2건국추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민원 기동처리반은 4개조 2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관련 민원이 오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그 이면도로나 청소취약지역에 매일 순찰, 특별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미화원 실명제를 실시해서 그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외람되지만 민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몰지각하게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도 있고 또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치우는 또 내 집 앞 내 점포 앞을 깨끗이 하는 그런 점이 아직 부족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종로의

첫째 조건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 쓸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종로 만들기를 할 것입니다. 또 지적하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한 동네에 살면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시비문제도 있고 해서 걱정된다는 그 말씀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는 신고정신이 투철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눈을 치우지 않으면 바로 전화가 와서 왜 눈을 치우지 않느냐 이렇게 고발하기도 하고 충고도 하는 외국사람들의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내 집 앞 그리고 내 일은 내가 책임지는 그런 정신이 깃들 때 우리 종로가 가장 앞서서 시민의식을 가진 구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옥인동 47-325에서 47-40까지의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지정 확장하여 옥인동 일주도로를 개설하는 안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본 구간은 현황 도로폭이 1.5에서 3m에 불과한 구간이 330m로써 아주 좁은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장기 미집행된 도로의 추진계획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로써 李憲九 市民行政委員長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千相旭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청, 청은 지역 주거밀집지역의 풍치지구해제 추진계획을 시급히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특별계획 입안을 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이 말씀도 주셨는데 참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연구 노력해서 빨리 추진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千相旭議員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10여년 동안 노력하고 연구한 것인데 저도 외람되지만 시의원 때부터 의회에서 이런 불합리한 풍치지구해제에

대해서 해왔기 때문에 저도 10여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행정이 더디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신정부가 이런 잘못된 법안이나 규제 의 혁파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삼청동, 청운동 일대 풍치지구는 기존 주택밀집지구로 일부 건축물은 양호한 소규모 영세 필지가 전체 필지의 30%로 분포하는 등 풍치지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97년 11월 검토된 바 있는 곳으로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에 제가 건의서를 두 번이나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복궁 등 특정지역과 인접되어 있어 풍치지구 해제를 위해서는 서울시 및 중앙기관과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제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풍치지구해제 문제는 다음에 나오는 鄭泰淳議員님 질문과 거의 같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실적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千相旭議員님께서 이성호 시의원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날 제가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봤더니 "삼청동 팔판동 일대의 풍치지구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으나 한번도 구청에서 시에 요청된 적이 없었다 풍치지구 해제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풍치지구해제를 구청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 풍치지구 관리기준에 비추어 해제요건이 됨으로 서울시에 요청된 최근까지 풍치지구가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직접 제가 청와대에 서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은 것은 전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시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99년 현재 이 지구 풍치지구 해제 및 고도지구를 18m로 완화하는 서울시에 질의했는데 풍치지구해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고도지구를 18m로 완화는 불가하다 현재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립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경복궁 관람을 위한 관광객들의 대형차 버스 등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체증 해결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시와 문화재진흥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저희도 열심히 해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관광객도 많이 오고 특히나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주로 봄과 가을에 많은 차량이 와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질서한 관광버스 대기차량에 저희는 공익안내원을 배치해서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차량질서유지를 계도하고 다소나마 교통체증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인도가 넓은 곳은 인도를 줄여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적하신 대로 인근의 노외 주차장 부지를 계속 물색하여 공용주차장 건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치안본부 자리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치안본부자리도 열린시민마당이라 그렇게 변경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지난번 인사동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구청에서 열렸는 바 이 자리에 구의원을 불참시킨 이유에 대해서 질책해주셨습니다. 참 마땅한 질책이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존경해마지 않는 洪承台 議長님 지역인데 어느 의원님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발생하는 일은 저는 반드시 국장님과 간부들에게 그 동 그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말씀을 드려서 사전에 인지, 숙지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의견과는 사뭇 다르게 되는 일이 많아서 가슴아픕니다. 이것도 제가 간중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무슨 지시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 담당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몇 개월이 지나서 그 담당에게 물으면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해서 바짝 정신차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변명 같습니다. 이 일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지역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정회에 배정된 예산 2,000만원을 당시 사회진흥과 포괄사업비에 배정했는데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지적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구정운영에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서 구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년초 지원대상 단체 및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지원신청 단체에 대한 소관업무별 각 부서의 검토 의견을 받아서 임의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써 의정회 활동에 대해 구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토록 관련 부서에 지시한 바 있으나 '99년도 사회단체임의보조 지급과 관련 심의회에서 의정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서 제외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에는 의정회의 정관변경으로 사업목적 등이 보조금지급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시나 일부 구에서 이렇게 보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도 이것을 지적 받아서 참으로 어렵게 일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지적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먼저는 법적인 문제, 정관문제가 해소되어야 하지 않는가 사료됩니다. 이로써 千相旭議員님의 질문에 답변에 같음하고 다음으로 金正大議員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正大議員님께서 많은 질문도 있으시고 많은 의견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기 위해서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시간을 할애해서 시간을 남겨주시고 질문을 한 가지 정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요지는 2000

년 6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시범동으로 송인1동과 명륜3가동이 선정되어서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인1동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주부가 1만원을 낼 수가 없어서 중구에 있는 그런 복지시설로 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즉시 지시를 했습니다. 이 규정이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어려운 동네인데 오죽 힘들면 1만원을 내지 못해서 타구로 가겠느냐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어려운 동네인데 강사비를 본인들이 물게 하는 것은 시범동에 적합하지 않다해서 내년부터는 그 문제를 우리가 지고 가도록 그리고 회비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질문 주셨는데 두 번째로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많이 해서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사무소에 민원중계센터를 설치해서 이런 폐단을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 차량도 내년에 연초에 구매해서 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제반 문제점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나가고 구행정 여건에 맞도록 계속 시정 보완하여 주민생활 불편의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吳錦南 副議長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부분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는 실적 위주의 단속인지 아니면 징수에 문제가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현황은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49만 4천여 건에 179억원입니다. 불법주차단속은 주민의 불편과 교통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로 실적 위주보다는 세수 증대를 위한 실적 위주와 세수 증대를 위한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금액이 소액이고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에

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주차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송달 등 적극적인 납부 독려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등록 외에 봉급, 예금계좌 조회 등을 실시해서 체권 확보 조치를 취함으로써 체납 해소와 징수를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무관급 이상 업무추진 사례를 책자로 발간해서 후임자에게 전임자의 체험을 전달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구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무관급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하위직까지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의 업적도 기리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 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고견을 행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도입하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겪었던 사례와 그 체험담 그리고 좋은 경험을 책자로 발간해서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적극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사직공원의 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직근린공원은 매월 음력 보름날이면 많은 노인분들이 모여서 장기, 바둑, 담소와 풍악 등을 즐기고 해서 상당히 소란스럽고 해서 주변의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사직단도 있고 해서 참으로 우리 역사의 문화가 있는 문화지구라고 보여지는 사직공원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 경찰과 합동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했는데 노인분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부터는 경찰서 지원 없이 구청 자체로 말씀하신 새 모임이 있을 때마다 계도하고 있으나 성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물 제작

배포와 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동민과 더불어서 민·관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풍기 문란 행위, 고성방가 등을 하지 않도록 단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직동에 서부 구립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좋은 질문이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종로구에는 없는 것이 하도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초대부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끊임없이 이런 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또 발표도 하고 해서 많이 해소되어서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이렇게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저도 끊임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동부에 동덕여고 자리에 구민회관을 설립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반발도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구민회관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로에 공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서 그 점도 제가 마음에 췌어나 걸리고 아마 말씀드린 균형발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서 아시다시피 해화동에 있는 국민생활관을 저희가 1년간 준비 끝에 우리 구청 소유로 만들어서 중부와 동부가 지금 해소되게 되었는데 저희는 1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서부에 대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왔습니다. 여기에서 밝히지만 평창동에 있는, 구기동이죠? 미도파 거기를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 또 평창동에 있는 그런 대지를 매입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개가 경쟁입찰에 붙여지는 부분이 많은데 유찰이 되면 매입가가 싸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의 취지는 이 서부지역에 적극적으로 그런 복지시설을 갖고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뒤편 副議長께서 사직동에 이러한 좋은 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셔서 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서 2000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까지 대지 1,100평에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연건평 800평 정도의 규모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 건립비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 협조를 받아내야 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이끄심이 있으면 빨리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현황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성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해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2000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 입법예고안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시설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20년이 경과된 미집행 시설은 실효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그런 예고안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사업시행이 시급히 요구되거나 구 재정 형편상 조기 시설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해서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고 앞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하여 사업시행하도록 하고 향후 예산 확보 등 집행계획 없이 새로이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봉급 삭감 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동사무소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이나 수당 폐지로 동사무소 기피현상과 팀제 도입으로 인한 계장제도 폐지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은 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IMF 이후 공무원들의 봉급 삭감은 구조조정으로 사기가 땅바닥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의 봉급 문제는 구청장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IMF 이전의 수준으로 환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만사지탄이지만 기쁜 소식으로 생각되고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이 공무원들의 적은 봉급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기진작책으로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는 직원 취미클럽의 활성화

그리고 직원MT, 해외연수 등 여러 가지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 실시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 과거 상당수의 직원들이 우리 구를 떠나기를 원했지만 현재는 우리 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의 공무원들이 우리 종로구가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우리 종로구로 오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느 구보다도 상당히 좋고 원활하다는 이런 평판이 있는 것도 여기에 원인으로 자리했다는 말씀을 숨길 수 없습니다. 과거에 동사무소 근무자에게 오히려 승진 가산점도 주고 수당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에 가려고 로비를 한 것도 사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이제 동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지적해주신 바대로 동직원들이 좀 어찌면 우수하지 못한 직원들이 거기에 다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동장님들도 그렇고 동 직원들도 아직은 우수한 능력을 골고루 그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저나 우리 1,300여 공무원이 어느 누구 하나도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이러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하고 적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이라고 해서 아주 성질이 불량하거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직원을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팀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수십년간 실시되어온 계장제도를 지금 정부에서 일이 빠른 그리고 구조조정으로써 한 계단을 없애자는 의미로 팀제를 만들었는데 모든 매사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손이 없으면 어려움도 큼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일이 더 신속하게 되는 방법이 되기도 해서 계속적으로 이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면서 이 미비점이 발견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을 위한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제정된 다음 해인 '98년도에 기금 조성을 위해서 기금 3,0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가적 경제 위기를 맞아 부득이하게 실행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역시 같은 이유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파악해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에서 기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구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는 종로비전 5개년 발전계획에 2003년까지 노인복지기금을 9억 5,000만원을 목표로 매년 적립을 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우선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건국운동에 대한 '99년도 예산 현황과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2건국운동에 대한 주된 사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단위에서 추진하고 자치구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580만원이고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위원회별로 지역갈등 해소와 한마음 공동체 사업, 그리고 21세기 문화시민운동 전개와 부정부패 추방운동, 신지식운동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현재보다 340만원 증액된 1,92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예산 증액을 배려해 주신다면 본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지원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으로 '99년 보조금 지급 현황은 새마을 단체가 7,344만원이고, 구지회에는 3,240만원 그리고 동에는 4,140만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단체에는 총 4,347만원이고 구협의회는 1,440만원 그리고 동에는 2,97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서 吳錦南 副議長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李炯述議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스개 소리로 말씀드리자면 의원들님이 평소에는 굉장히 격려도 해주시고 과찬도 해주셨는데 이 구정질문에는 정말로 아주 날카롭고 따끔한 그런 질책을 해주셔서 정신이 바짝 납니다. 특히 오늘 李炯述議員님도 많은 과찬을 해주시기에 상당히 기분이 들었는데 나중에 아주 날카로운 체적을 주셔서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우리 종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李炯述議員님은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복춘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필생의 사업처럼 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회동 주민은 아니지만 이렇게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대로 이 가회동 문제를 가회동 문제가 아니라 종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또 우리 조상의 얼 또 우리 문화 그리고 문화의 세기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문화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심각하고 심대하고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자면 참으로 어려운 그리고 외로운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저도 어찌면 똑같은 심정으로 참으로 외롭고 힘듭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저 또한 서울시장님과 더불어서 간부들에게 수 없는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모두의 표현대로 참으로 법과 규칙,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또 부처간의 이기 또는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 등등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마음으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세기를 눈앞에 두고 2002년 월드컵을 눈앞에 두고 이제 국가와 시에서 절대적으로 문화전쟁인 21세기에 우리 종로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인사동 등 종로구에 산재해있는 문화재

나 문화의 거리나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수없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차없는 거리만 하더라도 3년 여를 우리가 투쟁해왔습니다. 드디어 차없는 거리가 되고 관광명소가 되어서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은 인사동을 들르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니까 손쉽게도 낙원동 차없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관철동 차없는 거리가 되어서 이제 수없는 사람들이 종로에 몰려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마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 소위 생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이 반드시 많아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로에 상권이 부활되어서 수많은 관광객과 국민들이 찾아오는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거기에 독버섯처럼 여러 가지 잡상인들도 판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변명같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炯述議員님께서 시장님을 찾아가셨을 때 집행부 간부들하고 왜 북촌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느냐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시행토록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께서 절더러 시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약간의 표현이 좀 조절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께서 이제서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제가 시장께도 수없는 건의도 하고 서류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제서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가 馬耳東風 격으로 임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서 저에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소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북촌마을을 문화특구로 지정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문화특구 지정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문화관광부에 부단한 건의를 해왔습니다. 관련법규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어 금명간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 공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법규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이 확정되면 우리 구에서는 문화특구 지

정 지역 계획 조사시에 북촌마을도 포함해서 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촌마을의 음식점 허가 경위에 대해서 질책해주셨습니다. 가회동은 도시계획법에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영업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9년 10월 16일 동 지역에 일반음식점 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북촌마을 인 점을 감안하여 민원인에게 설득 및 처리를 지연했는데 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향후 이 지역 정서에 맞는 업소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가회동뿐만 아니라 인사동에 대해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예술의, 문화의 고풍스러운 것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해서 매스컴에 많은 지적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이 법법 하면서 법밖에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점은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준법정신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문제보다도 법에 의하지 않으면 당장에 감사원 감사 등으로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지시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소위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하고 죽어가던 것을 생각하면서 악법도 법인 것을 현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악법의 개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건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재동초등학교 쓰레기 적환장을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어찌 쓰레기 적환장뿐이겠습니까? 지하 주차장 이 문제도 다 아시겠지만 저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가회동에 가서 금년 안으로 꼭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될 듯 하다가도 안되는 이 일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해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학부모들이 거기에 매연이 나고 아동들에 교통 위험도 되고

해서 안된다 또 요즘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는 굉장히 소음이 나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얘
기도 했다고 하는데 또 건축공기가 길어서 안된다
고 얘기했다는데 잘못 아는 공무원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방학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으
로 알고 있고 또 소음도 어차피 차량이 지나다니
는 것이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아래 지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이미 아시
지만 이 법에 학교에 영구시설을 할 수 없다는 이
법 문제 때문에 되지 않아서 이 법이 개정되면 이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동구의 금호초등학교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거
기는 지하에 수영장도 만들어주고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다 투입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수영
장을 학생들이, 기부채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예산을 그렇게 할 수 있
다고 한다면 거기에다 수영장도 어린이들에게 만
들어주고 구민도 사용하고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
이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그동안 중구
교육장에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본청 교육감에게
얘기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또 그렇게 얘
기하니까 또 시장에게도 얘기해주마 이렇게 해서
상당히 평풍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
슴아픈 일인데 그렇지만 언제 쉽게만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제가
종로에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로 하겠
습니다. 아시다시피 적환장 문제도 저희는 공터
하나 없어가지고 대형 적환장이나 소각장이 없어
서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곳곳마다 쓰레기
적환장을 없애도록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희학교 앞에 있는 그런 어려운 장애인들이 다니
는 곳인데 거기에서 쓰레기 적환장이 학교 사이에
커다랗게 놓여져서 거기에 가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아주 적환장을 조
그마하게 축소하는 한편 깨끗하게 빨리 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희망적인 것은 소각장이거나 또 쓰레기 처리장이
생겨날 예정으로 저희가 시에 더불어서 합동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해
결되면 지금 김포검단에서는 크기의 차량만 받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소형차량도 바로
쓰레기를 내려서 분류해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
에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제까
지 참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참아야 하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좀 적시하자면 강서 자원회수
시설이 완공되면 그런 소형차로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용품이나 작업도구가 노
상에 방치되지 않는 더욱 좀 청결하게 하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서공원에 대한 전통혼례식장을 설치
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도 보고받기로는 현대건설에서 반대해서 안된다.
그런데 의원님께서서는 자세하게도 저도 일부는 알
고 있지만 구청 부지도 거기에 끼여 있고 6개회사
라고 하지만 직접 가서 해봤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좀 뜨끔했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기도 합니다.
바로 창덕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통혼례를
하고 또 문화관광상품으로 또 되면 그런 일이 있
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마
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현궁에서 전통혼례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실질적
으로 우리 간부가 가든지 제가 가든지 해서 상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회동 북촌마을 가꾸기에 따라 모든
지상시설물 한전, 체신 등 지중화할 계획은 없는
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전에 고객위원회엔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10월달부터 참석했는데 요
즘 바빠서 잘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전선주같은 것을 지중화해달라 하고 종로의 배전
관 등을 빼달라 합니다. 한전이 굉장히 흑자를
내는 그러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
들은 아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검토자를 잘 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
리 동네 종로관내를 보면 아직도 전선주가 있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물이 되기도 하

고 전선이 많이 늘어져서 교통방해도 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한전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개선대책, 관계법령 개정건의, 도로개설 후 건축허가 또 수용 후 잔여 소규모 필지에 대한 보상 등 소상하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시책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초 개선 목적과는 달리 주택의 과밀화 현상이 일어나고 또 길도 제대로 넓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밀화로 인해서 교통영향을 침해한 주차공간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코자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조례를 개정코자 서울시의회에 지금 상정돼서 현재 안건이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해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더 좋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 개설을 이 유로 현행 법규상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 등 기본시설물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들이 건축공사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및 건물 수용 후 잔여 필지 중 폭이 좁거나 형상이 부정형으로 사실상 대지로서 수용 곤란한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확대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로써 부족하나마 李炯述議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劉燦鍾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대책과 그리고 구의원에게 노트북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구축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21세기는 인터넷 네트워크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2001년까지 직원 1인 1 퍼스널컴퓨터 보급을 완료하고 전직원에게 E-mail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구정 모니터 요원 등 구민에게도 점진적으로 E-mail을 제공할 계획입니

다. 또한 전자결재도 내년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고 홈페이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구청장이 얼마나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있느냐 하는데 저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좀 더디지만 언제든지 빛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고백하지만 컴맹입니다. 영국의 수상도 컴맹이라고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반자라고 했는데 아무튼 저는 임기 내에 컴맹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직원이 검색을 해서 저에게 보고를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핑계같습니다마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갖기가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21세기 선진 종로를 부르짖는 구청장으로서 컴맹이라는 것은 실로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2000년부터는 열심히 노력해서 21세기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주민 PC갖기 운동 일환으로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으로 해서 독지가나 유사한 기업체에서 약간 구형을 얻어다가 저희가 수리해서 어려운 저소득가정에 지금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직원의 의식변화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화 자격시험을 추진하겠으며 내년에는 구의회에 네트워크 망을 구축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자료를 즉시 받아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의원님께 노트북 지급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 우리 관공서에 비닐봉투를 우산을 넣도록 제공하는 그러한 방안 이러한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이 세세한 일에 대해서 구민들은 만족을 합니다. 저희도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러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점상 정비와 가로수 변경 등으로 종로미관 개선에 대한 구청장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는 자료에 의하면 36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9종 6,580주가 식재되어 있고 주 수종으로는 은행나무, 버드나무가 90%이상 차지하고 있어 가로수가 획일적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전년도에는 대학로에서 성대간 개설된 도로에 46주의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해서 젊음과 낭만의 거리에 걸맞게 조성했습니다. 내년엔 본 노선에 소나무 가로수 30주를 더 연장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가로수 수종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녹지 확충이 시급한 현시점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전통성과 현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회동에서 감사원간 도로와 동대문경찰서와 효제초등학교간 새로 개설하는 노선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나무, 산벚나무, 향토수종을 식재하고 '99년 12월에서 2000년 2월말까지 가로수의 고유 수형에 맞게 건물 접촉 가로수 등을 전지하여 아름답고 생동감있는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부연 말씀드리자면 버듬나무가 그렇게 나쁜 나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외국에 가보셨겠지만 상제리제 거리에 보니까 플라타너스 나무가 거의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 모양이 아름답고 마치 사람이 이발하듯이 그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가로수를 놓아서 참 멋있구나 생각해서 우리도 어느 한곳을 지정해서 그렇게 멋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기구가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구입한 다음에 해볼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IMF로 인한 생계용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그리고 단속을 실시해서 보행에 불편을 준다는가 하는 노점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쾌적한 종로를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부지 이전에 따른 활용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기획추진단 아까 가회동도 그런 같은 내용을 말씀해주셨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이러한 추진단을 결성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는 시장에게 공사장에서 기상청 부지를 종로에 넘겨줄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보니까 종로는 남

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번두리는 많은 사유지도 있고 빈땅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종로는 600년 고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고 이렇게 역설하고 지금 혜화초등학교, 혜화여고 그 이전부지 또는 서울사대부중 그 부지를 저희들에게 넘겨줄 것을 계속 얘기하고 또 기상청 부지도 저희에게 넘겨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제 그것도 부처 이기주의랄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시에서 만약에 주면 시의회에서 야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매입하는 방법으로도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부지가 넓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특별회계인데 이것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면 적합한가 이러한 문제도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남동 지역은 문화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도 아주 협소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구에 이양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양이 되면 교남동 인근 주민에게 복지시설을 설치해서 많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로써 劉燦鍾議員님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고 다음으로 鄭泰淳議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 자치 2기공약과 취임 후 약속사업과 총 85개 중 66개 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시기 미도래 등 19개 사업은 임기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유세를 하셨습니다라는 유세에서만 공약을 합니다. 유독 저는 공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팜플렛에 그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거기다가 적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공약을 않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 시

절에도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어쨌든 공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도우심으로 100%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12번 해서 3,117명을 대상으로 어제 또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면 및 전화 설문을 해서 그 결과를 얻어냈는데 너무나 좋아서 거짓말 같습니다마는 95%이상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인구 증가 대책은 무엇인지 이러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민선 과제로서 '떠나는 종로에서 돌아오는 종로'라는 슬로건을 했을 때 좋은 슬로건이라고 많이 격찬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한편으로는 돌아오는 종로는 커녕 왜 사람이 떠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해주신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무악동 재개발이라든가 또 동승동 시민아파트 철거라든가 또 청운아파트 이러한 철거 문제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무악동에도 또 혜화동에도 또 평창동에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도심재개발에서 주상복합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인구가 너무 많아질 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30만 정도가 적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를 보면 정확하게 18만6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창신1동 두산아파트가 529세대 2,000명이 입주했고 또 무악 현대아파트에는 1,500세대 2,500명이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동 재개발사업이 주상복합 형태로 되어 있는데 600세대 2,400여 명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인구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이 되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아시다시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가장 살기 좋고

쾌적한 곳 중의 하나가 종로로 선정될 만큼 종로구가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녹지지역이 거의 50%에 달하고 또 우리 서울의 산소인 북한산 등 아주 명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로보다 좋은 곳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구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인구가 있음으로서 살기 좋은 종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청운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鄭泰淳議員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청운아파트 주민 자체 철거동의가 91%인데 서울시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 계획에 따라서 '99년 4월 보상계획 공고후 '99년 6월부터 보상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99년 11월말 현재 전체 가옥주 577개 호 중 442개 호 약 76%가 협의보상을 완료했고 지금도 협의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이 도시계획 공원용지로 책정되어 있으며 일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사실상 재건축은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의 철거 이주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구정 목표를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추진하여 구민들의 대다수가 원하는 일을 한다면 서슴지 않고 심부름을 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자주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풍치지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풍치지구 해제계획은 있는가 이렇게 질문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종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군사보호시설이라든가 문화재 또는 특수지역 또 풍치지구 이러한 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너무나 우리 구민들을 얽매고 있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기를 역대 대통령이 여기 임기동안 있다가 가지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성만 너무나 듣고 간다. 주위에서 찬사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올바른 대통령인가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金大中

大統領께서도 외람되지만 이렇게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좀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셔야 한다. 두번이나 서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부근에 살면 창문도 그쪽으로 내지도 못하고 고도제한도 받고 풍치지구나 그런 특수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거의 못하는 실정에 있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千相旭議員님과 더불어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 과거보다 풍치지구가 많이 해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순간에 배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해서 비합리적인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11월부터 관내 풍치지구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사직동, 신영동, 홍파동 등 8개소에서 84,920㎡를 풍치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또한 청운동 89번지 등 2개소 건축제한을 4층이하 건폐율 40%이하로 완화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풍치지구 지정 목적을 상실하여 불합리하게 풍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풍치지구 해제를 추진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세계획 구역에 관한 사업진행 과정과 계획은 어떠한가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상세계획구역 5개구역 중 교남, 무악구역과 경복궁구역은 서울시에 도시계획 결정을 요청했고 동대문구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고 교통영향평가를 시행중에 있고 사직구역은 재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 6월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서울시 지침이 수차 변경되는 등 이후로 계획 확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조속히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동 통폐합 이후 사직, 세종로동 주민 상호간 원만한 유대관계가 아직 소원하다고 융화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사안을 알고 있는지 또 소외감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예민한 부분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5천명 미만 동을 통폐합함에 따라서 세종로동과 3,4가동이 통폐합돼서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대표를 위시해서 모든 주민께서 서로 이해하고 화합단결해 나가면 융화 결속이 더욱 다져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는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이런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구역 지정건수와 진행상황 및 구역지정 후 장기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건수는 주택재개발이 4개구역으로 무악, 청운구역이 2개소가 사업추진중에 있고 도심재개발은 12개 구역 101개지구로 27개 지구가 사업 완료되었고 14개 지구가 사업중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관하고 추진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 계속되는 건설계획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서울시 확보된 재개발 기금을 용자반아서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2개 사업자의 용자추천을 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것을 홍보해서 재개발 구역을 최대한 활용토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간단하나마 鄭泰淳議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李東奎議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신3동 경찰기동대 이전 문제인데 의원님께서 주민들과 더불어서 서명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을 창신3동에 거주하는 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생도 이 서명작업에 동참해서 제 이름을 써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주민들이 경찰기동대가 거기에 위치함으로써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저도 절감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재산이 경찰청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의원님과 더불어서 관계기관이나 중앙정부에 건의

해서 이전토록 노력할까 합니다. 만약에 이전되면 어려운 창신3동 주민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숙원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를 낙산가정복지관까지 연장운행 계획을 질문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숙원사업이라든가 현안문제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대개가 아시다시피 이러한 법적 또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민원문제는 상대민원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는데도 일부 극소수 주민이 반대하면 상당히 지연되고 시행키 어려운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쩌면 어떤 사람의 표현대로 좀 소란스럽고 귀찮은 존재인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을버스를 낙산삼거리에서 낙산가정복지관까지 노선 연장하는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는 지난 '98년 3월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 여론조사 실시, 주민 설명회 2번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창신2동 인접주민들이 노선 폭이 좁다, 차량 소통으로 인한 소음이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를 해야 한다. 집단 반대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도로폭을 확장하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시민아파트 19동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지역주민의 다수 민원을 해결 후 빠른 시일 내에 노선이 연장되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수거 대행구역 확대계획은 질문주셨습니다. 어제 金福同議員님 질문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청소대행 현황은 3개 대행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체 쓰레기량의 약 55%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방향은 점진적으로 대행구역을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합시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구역은 청와대 등 특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용역

을 줄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합원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 20명쯤 퇴직을 하게 되고 내년 상반기에 한 18명쯤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민간인 용역이 늘어날 전망이란 것을 우선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인 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청결과 개방 계획을 말씀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참으로 중대한 일입니다. 가끔 저희가 길을 가다가 구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관내의 화장실을 참 깨끗이 해놨다, 택시 운전수가 그런 평판을 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원 등 많은 곳의 화장실이 불결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청결 그리고 지적하신 그런 용품을 철저히 준비해서 아주 쾌적하고 깨끗한 그런 화장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이 5개 독립된 것이 그리고 주유소, 대형건물 등 181개의 다중이용화장실이 있습니다. 종로를 찾는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인사동 지역이라든가 그런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업소당 2,000만원의 개선자금을 융자 앞선하여 화장실 수준을 향상시키며 개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및 국제 행사 등 종로를 찾는 외국인이 많아짐에 따라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인 수준의 화장실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100톤입니다. 그중 670개소의 의무감량업소에서 자체 처리하는 15톤을 제외하면 85톤은 별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서울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설치하는 광역자원화 계획에 따라서 처리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참여분담금 15억원을 매년 5억씩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난

지하수처리장이 전액 시비로 건립되는 하수병합 처리방식에 의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97년에 공동주택 단지 등에 시범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는 운영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어 현재 수도권지역 농가에 임대하고자 수요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李東奎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고 다음은 吳弼根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화동 전철역 앞 쓰레기적환장 이전요구 및 해화동 지역의 대행구역 지정을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구가 지닌 여러 가지 현안 중의 하나가 쓰레기적환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해화동 전철역 앞의 쓰레기적환장은 저도 여러번 나가봤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더 사람이 적게 통행하는 서울외대 쪽 방향으로 옮겨달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가 참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기간 안에 단기적으로는 쓰레기 상차작업 시간을 축소하고 통행이 한가한 시간대를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는 200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강서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면 대형차에 옮겨지는 상차작업 없이 소형차로 직송하게 됨에 따라서 적환장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행구역으로써의 지정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 전원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47명 이하로 감축된 이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경궁에서 창덕궁 간 주변건물 및 순라길 주변건물이 낡고 노후되어 있는데 보수 및 정비계획은 있는지 물으셨고 또 순라길 재현 의지는 있는가 하는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상기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과 일반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주변 가옥 등이 노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 주변을 보다 수준높게 정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으며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관 부서인 문화재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와 서울시는 4대문 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종묘, 창경궁, 창덕궁, 돈화문에 이르는 고궁길을 총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까지 주변 정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吳弼根議員님께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이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화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대 문화재 보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구에 배정된 예산을 특별히 빼워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 10건의 보수계획인데요 서울 동묘에 9개소, 국가지정문화재 6건, 시지정문화재 3건 해서 사업비는 6억 6,514만원이고 국비는 2억 3,500만원, 시비는 3억 8,105만 3,000원, 그리고 구비는 4,94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지정문화재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비와 구비가 70대30으로 예산편성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하는가로 환경정비 단속인원에 투입하는 인원에 대한 효율성이 극히 저조한바 이에 대책은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경영마인드를 살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많은 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봐야 하고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로환경정비 단속업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비용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로 금년도 단속업무의 비용은 1억 7,400만원으로 작년대비 2억 100만원에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단속인원도 '98년도에는 29명에서 금년도에는 19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은 늘어나고 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줄고 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단속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

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특별한 지역에 해당하는 종로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한바 있었습니다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IMF로 인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가 저조하였으나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吳弼根議員님의 질문에 간략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玄壽漢議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시 공무원의 현장조사 없이 건축사의 점검에 의해 허가함으로써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우기시 축대붕괴의 사례가 있음으로 세검정 지역만이라도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건축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축허가시 공무원의 현장조사는 부조리를 일소하고 전문가에게 일임하도록 제도상 되어 있어서 건축사의 현장조사를 허가하고 있으나 향후 허가시 건축사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안전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건축물의 실태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 현장에 직접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담당이 현장을 꼭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우리 구에서는 세검정지역의 노후 축대 붕괴 등이 우려돼서 부암동 46통 일대 약 16만평을 조사해서 260개의 축대를 전산 관리해서 매스컴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전부 집대성해서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다음으로 '83년도 이후에 대여해준 정부 대여양곡 중 미상환분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결손처분을 건의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丁炳煥議員 질문과 같은 내용인데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공무원보다 오히려 세세하고 소상하게 연구하여 이렇게 지적해주셔서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점은 상환하지 못한 이런 것에 대

해서 결손처분이 마땅한데도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결손처분을 다시 건의하고 가능한 상환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상환 촉구를 할까 합니다.

· 다음은 내년 6월까지 전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화함으로써 동청사 신축을 위해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자립도가 66%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실정의 낭비라고 보는데 오히려 기존 청사를 깨끗이 수리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해당되는 의원님께서 항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두 분 모두 옳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황희 정승은 아니지만 매사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종로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종로구가 강북개발 억제와 인구분산책으로 예를 들어 강남 같은 데 우리 세금을 전부 거둬들여 가지고 거기 신도시 건설에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이제 거의 독립재산제가 되고 자기 구의 세금은 자기 구가 쓰는 방향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존재원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때부터 구 의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우리 집행부와 더불어 힘을 쏟은 결과 매년 가장 교부금을 많이 가져오는 구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보더라도 다른 동이 전부는 아니지만 동청사가 5,6가 보다는 거의다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동청사는 아주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동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 전환으로 말미암아 아직 정비되지 않은 동청사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화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5,6가동에 동청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동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시다시피 5,6가동은 가장 넓고 협소한 지역

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뼈아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자랑을 하되 언제든 두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는 우리 집행부가 잘해서 뿐만 아니라 19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가졌다는 말씀과 또 한가지는 구조조정으로 줄었습니다만 그전에는 2,000여 공무원이 전부 친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조건부의 칭찬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여 공무원이 있는데 아직 이 1,300여 공무원 전원이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친절도를 점검하고 조사할 때 단지 현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친절도를 점검하고 조사해볼 때 종로구청 공무원이 그 중에서 가장 친절하다는 것뿐입니다. 이 점에서 또 한가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제가 시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설득하고 하지만 종로구는 수 없는 인파가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번두리 구나 지방자치단체처럼 일일이 일어서서 어찌면 백화점처럼 인사를 드릴 수 없는 현실을 양지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민원실에 대해서도 일어서서 인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줄서있는데 일어서서 인사하고 앉고 그러면 오히려 그 분들이 짜증을 낼 것입니다. 일어나 빨리 하라고 할 것입니다. 앉아서 목례를 하고 밝은 미소를 하되 신속한 일 처리를 하고 친절하고 예절바른 행동을 해라 이렇게 저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민원실을 뜻함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다시피 성과를 가면 많은 직원들이 흘깃흘깃 쳐다보기도 하고 또 자기들 이야기도 하고 자기 일을 보면서 모른 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개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성과에 간부나 당직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 안내를 하고 예절바르게 일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것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아직도 우리 불친절한 공무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고 좀더 지켜봐 주시고 더 하교해주셔서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이, 소위 종로가족이라고 불리는 1,300여명 모두가 친절하고 예절바른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무보수로서 헌신 봉사하는 의원님들께 불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우리 종로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교육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로써 간략하게나마 玄壽漢議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金以煥議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대부자 선정에 있어 소규모 점포와 자력기반 구축 능력의 개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기금 대부 홍보활동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을 가만히 경청해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과 거의 같게 마치 국회의원 의정질문이 아닌가 착각할 만큼 아주 날카롭고 소상한 질문이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었다는 것을 실토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는 소규모 점포에 대한 지원은 대상사업장이 종로구 관내에 소재하는 10평 이내의 영세 상행위를 하는 점포이고 자립기반 구축 능력을 위한 대부는 대부대상자가 건강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주민으로 동장이 생활상태를 확인하여 추천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99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신청 접수는 9월 6일부터 30일까지 25일간 받았으며 각 동사무소에서 입간판을 설치하여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통반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이런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질책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도

친절문제와 함께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연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재정운영 실적에 있어서 전국 최고의 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활성을 위해서 적지만 '93년부터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까지 18억 1,400만원을 지원금으로 49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대출조건이 까다로운 은행이나 지원의 적정성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을 할까 합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시비 2억으로 중소기업 창업육성센터를 설치해서 정보처리, 컴퓨터, 벤처기업 등 소규모 산업체를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민원창구를 취업창구화 하였던 데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는 구직자들이 취업정보은행의 구인·구직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안내역할을 하고 있는데 취업접수 업무는 구청에 설치된 취업정보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 비치된 민원창구에서 처리한 취업알선 실적은 없습니다. 구청 취업정보은행에서 처리한 실적은 '99년 11월말 현재 접수된 구직등록자는 9,184명이고 그중 취업 알선 건수는 5,078건이고 취업한 사람은 1,152명입니다.

다음은 노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지원사항은 어떠한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재래시장 중 창신시장과 신설동 종합시장을 '97년 재래시장 재건축 대상으로 선정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창신시장은 '99년 12월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2000년도 초에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한 후에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동 종합시장은 재건축조합 미설립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재건축 부동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재개발 대상 시장에서 스스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자금 융자, 지방세 감면 등 행정적 지원

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낙원동과 창신동 등 자생인력시장의 지원 현황은 어떤가 말씀주셨습니다. 창신동 새벽건설일용인부들의 자생인력시장은 '98년 12월 이후 동절기에 취업이 안된 일용직 근로자 연인원 9,779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해서 일자리를 제공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원동은 악사 등 특수업종 종사자들의 자생인력시장으로 취업 등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안전 문제와 관련한 구청의 계획은 어떤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96년 전국 최초로 안전순찰대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안전관리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올 4월부터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현장순회안전관리반을 구성해서 위험시설물을 점검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노후주택도 보수해주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2회씩 현장확인행정의 날을 운영해 전 간부들이 관내 전 지역을 샅샅이 순찰해서 안전 유해요인이나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내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문제는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우리 중로를 안심하고 살수 있는 아름다운 중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은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혜택을 구민들에게 파급시킬 전략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중국의 동성구, 몽골의 수헤바타르구,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랭카스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평창동은 펜실베니아의 어퍼기니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효자동은 중국의 빈주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좀더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올해는 중국과 몽골을 의원님과 더불어서 경제인과 같이 경제교류 활

성화를 위하여 양 도시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문한 바 있었는데 참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은 경제, 문화, 관광, 체육, 청소년 교류 등 여러 분야에 폭넓은 확대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와의 교류방안은 선진국의 잘된 행정을 도입해서 우리 구 행정에 접목시켜 보다 나은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구민을 위한 경제, 문화, 관광, 체육분야 교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매결연 중에 있는 3개국 도시와 협의 후 내년도에는 공무원 파견근무, 방학을 이용한 학생과 가족 상호방문, 관광객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99년도 예산이 '98년 예산에 비해 18.9%가 줄었는데도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었는데 이는 행정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 특별회계는 '98년에 비해 17.3%가 증가했는데 이는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 예산은 IMF 경기침체 영향으로 '98년 1,268억원 보다 331억원이 감소한 937억원이었습니다. 이중 경상 예산은 627억원으로 구성비가 67%를 차지하고 '98년 58%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98년 예산 735억원보다 108억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정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이고 2000년도에 올해보다 122억원이 증가된 399억원의 투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사업비에 더 많은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 시설 설치에 따른 적정부지 미확보 등으로 예산을 매년 적립함에 따라 증가하고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착오부과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과 부과기준이 모호한 경우 과세자의 입장에서 부과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99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 총 71만

1,000건 중 착오부과가 4,900건으로 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착오부과 사유는 관련 부서인 무역협회, 경찰서, 세무서 등의 면허세, 주민세 등 과세자료 지연통보와 소유권 이전 및 과세자료 입력 오류 면적과표 결정요소 착오적용 등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의 과세자료를 적기에 통보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민원사례 중심으로 실시해서 착오과세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또한 부과기준이 다소 모호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기관인 서울시나 행자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1세기 정보화 인프라 구축의 투자가 중요함으로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보다 컴퓨터 강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문 주셨습니다. 21세기 정보사회는 인프라의 조기 구축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전산기 도입과 구내 통신망 구축,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영 등 정보화 환경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구동 민원실에 민원 전용 인터넷 코너를 신설하였고 내년에는 각동에 1회선의 인터넷을 3회선으로 증설하여 많은 구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구에서만 실시하던 컴퓨터 강좌를 구민회관에도 교육장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구민에게 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관내 민, 산, 학, 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지역정보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결산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바란다. 그리고 기초의회가 담당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상책임제 도입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경우 책임자를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

는가를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확인하는 절차인데 지방의회 의 승인의 효과는 정치적 책임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정사항에 대한 회계공무원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제안내용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내용으로써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우리나라 지방제도의 발전방향이라고 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종로구 홈페이지가 작년에 비해 다양화 되고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보다 풍부하고 신속한 자료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행정서비스 제공의 최첨단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우리 구도 온라인 민원처리, 개별공시지가 등 서비스 맥을 지속적으로 확대 제작하여 월 평균 1만 2,000명이 방문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 직원을 지정해서 매일 새로운 자료를 입력해서 현실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법규 제공은 지난 11월말까지 모두 등록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홈페이지 구성에 있어서 우리 구 홈페이지가 지적하신 자치구에 비해서 다소 뒤진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신속한 자료검색에 있어서 앞서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규제개혁 내용, 행정공개자료 등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까 합니다.

다음으로 구의회 상임위원회별 구정모니터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효율적인 구정활동 지원과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구의회 상임위원회별 구정모니터 제도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사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할 경우 구정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파악 분석되어서 좋은 제공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洪承台 議長님! 그리고 吳錦南 副

議長님을 비롯한 議員님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의 답변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무척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열정어린 충고와 고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점에 유념해서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저희 직원들이 다소 불손하거나 서운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넓으신 아량으로 해량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올 한해 IMF의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아름다운 종로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많은 결실이 이루어졌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저와 1,300여 종로가족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고 수시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긴밀한 협조와 조정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버금가는 우리 종로구의회와 그에 못지 않는 집행부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다가오는 2000년 의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저의 부족한 답변은 보충질문이나 또는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주신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鄭興鎮 鍾路區廳長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내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예산심의 일정 등 여러 가지 민생안건 심의 등을 고려하여 오늘 보충질문까지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99년도 정기회 구정질문을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구정질문을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鄭興鎭 區廳長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방청석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2월 8일은 구청장님 답변사항에 대한 분석회의가 있으니 내일 오전 10시까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7時13分 散會)

○出席議員 19人

- 洪承台 吳錦南 宣相善 鄭泰淳
- 李憲九 千相旭 丁炳煥 李炯述
- 金福同 崔康洵 玄壽漢 洪起瑞
- 金以煥 安載弘 李東奎 金正大
- 吳弼根 劉燦鍾 朴鍾植

○出席關係公務員

- 區廳長 鄭興鎭
- 副區廳長 盧張鐸
-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 財務局長 金賢植
- 生活福祉局長 董連浩
- 都市管理局長 李鍾禹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保健所長 李星世